



| 국어 2-2 |

정답과 해설

공통 개념 기본서

빠른 정답 한눈에 보기	002
1 문학	008
2 읽기	020
3 문법	023
4 듣기·말하기	029
5 쓰기	030

1 | 문학

01 시

핵심 체크 | p.8~10

1 압축 2 화자 3 ○ 4 내재율 5 ○ 6 음보 7 ○ 8 생생, 구체화 9 ○ 10 ○

개념 확인 문제

p.11

1 (1) 화자, (2) 운율, (3) 심상, (4) 비유 2 (1) ㉠, (2) ㉡, (3) ㉢ 3 (1) ㉢, (2) ㉡, (3) ㉢, (4) ㉢ 4 (1) 역설법, (2) 반어법

(1) 모진 소리

지문 내용 확인

p.12

1 ○ 2 ○ 3 정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3

01 ⑤ 02 ⑤ 03 ④ 04 ③ 05 ④
06 ④ 07 모진 소리가 나와 타인과 세상을 아프게 한다.

(2) 별

지문 내용 확인

p.14

1 X 2 별 3 어둠, 대낮 4 긍정적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5

01 ④ 02 ㉠: 대낮, ㉡: 어둠 03 ⑤ 04 ③
05 ④ 06 ① 07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다.

(3) 따뜻한 말

지문 내용 확인

p.16

1 X 2 ○ 3 의태어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7

01 ⑤ 02 ⑤ 03 ④ 04 ③
05 따뜻한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져 살며시 미소를 짓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나타냈다.

(4) 나룻배와 행인

지문 내용 확인

p.18

1 나룻배 2 X 3 X 4 바람, 눈비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9

01 ③ 02 ④ 03 ③ 04 ④ 05 ④
06 ④ 07 ① 08 '당신'은 '나'를 짓밟고 돌아보지도 않고 가는 것으로 보아, '나'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정하다.

(5) 저녁에

지문 내용 확인

p.20

1 X 2 밝음, 어둠 3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21

01 ⑤ 02 ⑤ 03 ⑤ 04 ④ 05 ②
06 ② 07 비슷한 어조의 어구를 짝 지은 대구법과 서로 반대인 내용을 대비하여 표현하는 대조법을 활용하였다.

(6) 낙화

지문 내용 확인

p.22

1 하강적 2 X 3 은유법, 의인법

차곡차곡 실력 체크

p.23

01 ③ 02 ② 03 ② 04 ⑤ 05 ②
06 ② 07 ② 08 <보기>는 '결별'은 슬픔을 가져온다는 의미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A]는 '결별'이 '축복', 즉 영혼의 성숙을 가져옴을 나타내고 있다. 즉 [A]에서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의도를 참신하게 드러내면서 강조하고 있다.

(7) (가) 훈민가 / (나) 두꺼비 파리를 물고

지문 내용 확인

p.24

1 ○ 2 X 3 ○

작품 한눈에 보기

p.24

상부상조 백성 백승골

차곡차곡 실력 체크

p.25

01 ⑤ 02 ④ 03 ⑤ 04 ④ 05 ①
06 ⑤ 07 (가)는 평시조로 3장 6구 45자 내외의 정해진 형식을 지키고 있으나, (나)는 중장이 4 음보 이상으로 길어진 사설시조이다.

02 소설

핵심 체크 | p.26~28

1 허구 2 갈등 3 ○ 4 서술자 5 ○ 6 X 7 묘사
8 ○ 9 ○

개념 확인 문제

p.29

1 (1) -㉢, (2) -㉠, (3) -㉢ 2 (1) ㉡, (2) ㉢, (3) ㉠, (4) ㉢ 3 ㉠ 풍자, ㉢ 해학

(1) 내가 그린 히말라야시다 그림

잠깐! 소설 미리보기

p.30

삶 성인

차근차근 내용 체크

p.31~36

- 1 ④ 2 ③ 3 ③ 4 ④ 5 친구의 아들이 그림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여 재능을 살릴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6 ③ 7 ② 8 ③ 9 ④ 10 ①, ④ 11 번호에 얽힌 잊지 못할 사건이 있기 때문이다. 12 ④ 13 장원을 한 것이 기뻐서 /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14 ⑤ 15 ③ 16 ① 16 ④

작품 한눈에 보기

p.37

갈등 화가 다양한

차곡차곡 실력 체크

p.38~39

- 01 ② 02 ④ 03 ① 04 ① 05 같은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인물의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사건을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 사건에 대한 두 서술자의 서로 다른 관점과 심리를 비교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06 ③ 07 ④ 08 ⑤ 09 이 글은 두 명의 '나'가 자신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어 인물의 심리를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데 비해, <보기>는 관찰자가 인물의 행동만을 묘사해서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 달같은 달걀로 갇으렴

잠깐! 소설 미리보기

p.40

달걀 한외

차근차근 내용 체크

p.41~46

- 1 ④ 2 ④ 3 닭을 길러 달걀을 판 돈으로 아이들의 여행 경비를 마련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4 ② 5 ④ 6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달걀에 대한 양감움으로는 너무 지나치다. 7 ⑤ 8 ⑤ 9 ② 10 도시 아이들을 두메로 초대하는 데 드는 여비 11 ① 12 ③ 13 ① 14 ② 15 ③ 16 ⑤ 17 ③ 18 ⑤ 19 ⑤ 20 ④ 21 ⑤

작품 한눈에 보기

p.47

봄외 공원 분수 동물원 밤하늘

차곡차곡 실력 체크

p.48~49

- 01 ④ 02 ③ 03 ⑤ 04 도시 아이들의 달걀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생긴 분한 마음을 달걀을 팔아 마련한 여비로 도시 아이들을 초대해 자연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갇으라는 의미이다. 05 ① 06 ② 07 ③ 08 너는 미술을 잘한다는 영진이와는 다른 장점이 있으니, 스스로를 영진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말자.

(3) 두근두근 내 인생

잠깐! 소설 미리보기

p.50

아름 가상 책

차근차근 내용 체크

p.51~53

- 1 ④ 2 아름이가 희귀병에 걸렸다는 것 3 ③ 4 ③ 5 ② 6 힘들 때에는 관청은 척하지 말고 솔직히 감정을 드러내세요. 7 ② 8 ③ 9 ④ 10 ③

작품 한눈에 보기

p.54

아름 방송 출연 위로

차곡차곡 실력 체크

p.55

- 01 ④ 02 ⑤ 03 ⑤ 04 소재 - 편지, 새살 / 역할 -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는 역할을 한다.

(4) 소음 공해

잠깐! 소설 미리보기

p.56

가정주부 소음 인터폰 휠체어 슬리퍼

차근차근 내용 체크

p.57~61

- 1 ④ 2 ③ 3 ① 4 ③ 5 ④ 6 ③ 7 인터폰 8 ⑤ 9 ② 10 ② 11 ④ 12 우두망찰 13 ③ 14 ④ 15 휠체어 16 부끄러움. 17 ②

핵심 포인트

p.57 ~61

핵심 포인트

- 01 자원봉사자 03 경비원, 인터폰, 향의
04 슬리퍼, 휠체어 05 부끄러움, 휠체어

소주제

발단 주부 전개 소음 위기 인터폰 절정 장애인 결말 휠체어

작품 한눈에 보기

p.62

1 여운 소음 아파트 반전
외적 소음 반전 슬리퍼

차곡차곡 실력 체크

p.63

- 01 ④ 02 ④ 03 ⑤ 04 등잔 밑이 어둡다

(5) 소나기

잠깐! 소설 미리보기

p.64

조약돌 개울가 꽃뭉치 소나기 개울 그리워 호두

차근차근 내용 체크

p.65~67

- 1 ③ 2 조약돌 3 난 보랏빛이 좋아! 4 ② 5 ③ 6 소나기 7 ⑤ 8 ② 9 ② 10 ⑤

핵심 포인트

p.65 ~67

핵심 포인트

- 01 소극적, 소녀 02 보랏빛 03 위기감, 사랑 04 대추 05 유언

소주제

전개 소년, 소녀 위기 소나기 절정 사랑 결말 죽음

작품 한눈에 보기

p.67

간접적 짧고 긴장감 조약돌 도량

차곡차곡 실력 체크

p.68

01 ① 02 ⑤ 03 ② 04 소극적

(6) 준향전

잠깐! 소설 미리보기

p.69

변학도 부정부패

차근차근 내용 체크

p.70~75

1 ⑤ 2 생일잔치, 계기 3 ④ 4 ⑤ 5 반어법 6 ④ 7 ① 8 ①
9 ③ 10 ③ 11 ① 12 ② 13 ④ 14 ④ 15 ⑤ 16 ㉠ 변학도
의 횡포 ㉡ 이몽룡 17 ② 18 절개, 신분

핵심 포인트

p.72~75

핵심 포인트

01 변학도 02 탐관오리 04 신분

작품 한눈에 보기

p.76

한시 오얏꽃 탐관오리

차곡차곡 실력 체크

p.77~78

01 ④ 02 ⑤ 03 ⑤ 04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
는 역할을 한다. 05 ③ 06 ② 07 ⑤
08 ③ 09 단어의 위치를 뒤바꾼 언어유희를 통해 해학적으로 표현
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10 신분을 초월한 평등한 사회
에 대한 갈망이 나타나 있다.

03 희곡

핵심 체크 | p.79~80

1 X 2 지시문 3 X 4 신 넘버(S#) 5 ○ 6 ○

개념 확인 문제

p.81

1 (1) 갈등, (2) 현재 진행형, (3) 대사, (4) 무대 상연 2 (1) ㉠, (2) ㉡, (3) ㉢,
(4) ㉤ 3 (1) 노래, (2) 안무가, (3) 서술자 4 (1) - ㉠, (2) - ㉢, (3) - ㉤

(1) 소나기

차근차근 내용 체크

p.83~90

1 ④ 2 ① 3 ⑤ 4 ④ 5 ④ 6 ④ 7 ③ 8 ⑤ 9 ③
10 소년을 좋아하는 소녀의 마음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 11 ① 12 ⑤
13 ④ 14 윤 초시의 혈육에 대한 정을 잘 나타낼 수 있다. 15 ① 16 ③
17 ② 18 ② 19 산삼을 구해서 소녀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이다.
20 ③ 21 ② 22 ③ 23 ①, ④ 24 소년과의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
하기 위해서이다. 25 ③ 26 ④ 27 커다란 나무와 작은 소년을 대
비하여) 소녀를 잃은 소년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하기 위해서이다. 28 ①
29 ④ 30 ④

핵심 포인트

p.84~90

01 봉순

05 눈송이

작품 한눈에 보기

p.91

순수한 봉순 가을

차곡차곡 실력 체크

p.92~93

01 ④ 02 ④ 03 ① 04 소년은 소녀가 보고 싶어
개울가에서 기다리고 있다. 05 ④ 06 ③ 07 ⑤
08 소녀의 죽음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이겨 내려는 소년의 마음이 담겨 있다.

04 수필

핵심 체크 | p.94~95

1 수필 2 ○ 3 ○ 4 칼럼 5 개성 6 가치관

개념 확인 문제

p.96

1 (1) 개성 (2) 형식 (3) 솔직 (4) 교훈 2 (1) X (2) ○ (3) X 3 (1) ㉠ (2) ㉡ (3)
㉢ 4 (1) 공 (2) 수 (3) 수 (4) 소

(1) 과학자의 서재

차근차근 내용 체크

p.97~100

1 ⑤ 2 ⑤ 3 ① 4 ⑤ 5 ② 6 ⑤ 7 특히, 놀았다. 8 ⑤ 9 ②
10 ② 11 설의법 12 ⑤ 13 ② 14 ③ 15 이타주의

핵심 포인트

p.99~100

02 생각

04 솔제니친

작품 한눈에 보기

p.101

백과사전 <모닥불과 개미> 노벨상 이타주의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02~103

01 ① 02 ② 03 ② 04 ⑤ 05 백과사전을
보면서 동물에 대한 호기심을 느꼈기 때문이다. 06 ④
07 ④ 08 (가)-㉠ (나)-㉡ (다)-㉢ (라)-㉣
09 ㉠ 철학적 ㉡ 공동체의 집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2) 열보다 큰 아홉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04~105

1 ④ 2 ⑤ 3 ① 4 ③ 5 변화 주기 6 노력, 아홉, 열 7 ⑤

핵심 포인트

p.105

핵심 포인트

01 성공, 기능성

02 완벽

내용 한눈에 보기

p.106

완전 완전 설의법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07

01 ① 02 ④ 03 ④ 04 ③

05 모든 일에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았으며 아홉을 미래의 꿈과 그 가능성의 수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2 | 읽기

01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

핵심 체크 | p.110

1 정의 2 대조, 비교 3 구조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10

1 ③ 2 ③

그림에서 들려오는 소리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11~114

1 ③ 2 ④ 3 정의 4 ⑤ 5 색채와 기법, 구도를 통해 그림으로 나타냈기 6 ⑤ 7 ③ 8 ⑤ 9 ⑤ 10 ④ 11 ④ 12 ⑤

핵심 포인트

p.111~114

핵심 포인트

01 공감각적

03 인용

내용 한눈에 보기

p.115

분석 ①-㉔, ②-㉔, ③-㉔, ④-㉔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16~117

01 ④ 02 ③ 03 ① 04 공감각이란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것을 뜻해요. 05 색채, 기법, 구도를 통해 '풍당' 소리를 공감각적으로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06 ④ 07 ① 08 ② 09 ⑤

02 매체에 나타난 표현 방법과 의도

핵심 체크 | p.118

1 매체 2 의도 3 〇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18

1 ⑤ 2 ②

꿈꿈이와 함께 읽는 매체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19~122

1 매체 2 ④ 3 ④ 4 ② 5 ⑤ 6 ② 7 (가)는 탐방 예약제를 긍정적으로, (나)는 탐방 예약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8 ② 9 ⑤ 10 기사를 쓴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11 ④

핵심 포인트

p.120~122

핵심 포인트

02 의도

03 제목

04 부정적

내용 한눈에 보기

p.123

긍정적 ①-㉔, ②-㉔, ③-㉔, ④-㉔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24~125

01 ①, ⑤ 02 ③ 03 ② 04 이 가방을 멘 학생이 우월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 05 ④ 06 의도, 어느 한쪽 07 ② 08 ① 09 의도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어휘나 문장 표현,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여 표현한다.

03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핵심 체크 | p.126

1 〇 2 〇 3 길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26

1 ④ 2 보약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27~128

1 ② 2 ②, ④ 3 ③ 4 책 5 그 책을 읽은 경험이 인생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그 책을 읽은 경험 때문에 소설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6 ④

핵심 포인트

p.128

핵심 포인트

01 문장, 정신 세계

02 진로, 정신문화

내용 한눈에 보기

p.129

도서반	인생	책	보약	정신세계
소설가	이상	책보	책방	책갈피
책씻이	책가위	책등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30~131

01 ⑤ 02 ② 03 ③ 04 ④ 05 한문을 번역한 듯한 문체와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 무협지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06 ③ 07 ④ 08 ③ 09 자연을 보호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간다.

3 | 문법

01 정확한 발음과 표기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34~136

1 X 2 X 3 소리, 형태 4 표준 발음법 5 나았다 6 ⑤ 7 꼬지 8 X 9 ④ 10 넘쳐카게 11 나, 네 12 [차레], [가져]

잠깐! 교과서 학습활동 미리보기

p.137~138

① 단어의 올바른 표기

(1) 없음., 읊.



- (2) '없음'과 '업슴' 가운데 '없음'이 올바른 표기이다. '움'과 '웁' 가운데 '웁'이 올바른 표기이다.

2 받침의 발음

- (1) 박, 부엌, 남:, 난, 남, 남, 남:깨, 히음, 남따, 안, 달, 감, 강, 삼, 습
(2) 뉘[넉], 앓다[안따], 뉘대[널따], 외꿔[외꿔], 할대[할따], 없대[업:따], 뉘[닥], 삼[삼:], 읊다[읍따], 맑게[말께], 뉘고[물꼬]

- 3 모음 'ㅓ'의 발음 우리에, 우리의, 희망, 띠엄띠엄, 의사, 주이, 주의

- 4 올바른 발음과 표기 (1) [꼬치], [거시지], [발미테서], [꼬뒤에], [일코]

- (2) • 맞는 표기: 쓰러질

- 표기에 적용된 원리: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법이 적용됨.

학습활동 응용 문제

p.137~138

- 1 ⑤ 2 ④ 3 ④ 4 ④

차근차근 개념 체크

p.139

- 01 한글 맞춤법 02 소리, 의미 03 (1) 칠판, 설거지 (2) 연필깎이, 달걀
말이 04 표준 발음법 05 ①-ㄴ, ②-ㄷ, ③-ㄷ
06 ①-ㄷ, ②-ㄷ, ③-ㄴ 07 의문, 무니 08 저, 저, 처
09 버들 10 디그시 11 (1) 드러나오 (2) 무난하게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40~142

- 01 ④ 02 ④ 03 ④ 04 ⑤ 05 ③
06 빵집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의미를 전달할 때에는 '닫혔어요'라고 표기해야 하는데, 신체에 상처를 입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인 '다쳤어요'라고 표기했기 때문이다. 07 ③ 08 ⑤ 09 ④
10 ⑤ 11 ③ 12 ㉠ 쓰러질 13 ③ 14 [여덟비다], 겹받침 'ㅃ'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이어질 때에는 겹받침 중에서 앞엿것은 앞 음절에 남고 뒤엿것은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15 ③ 16 ① 17 ④
18 ⑤ 19 ④

02 담화의 개념과 특성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43~145

- 1 〇 2 발화 3 ㉠, ㉡, ㉢ 4 상황 맥락 5 상황 6 사회·문화적
7 〇 8 X 9 〇 10 의미 11 ④ 12 X 13 〇 14 〇
15 통일성 16 응집성



잠깐! 교과서 학습활동 미리보기

p.146~147

1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

- (1) • 담화의 참여자: 유미와 성현이 • 담화가 이루어진 장소: 교실
• 담화가 이루어진 시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 방과 후
(2) 같이 시험공부를 할 장소로 도서관이 어떨지 제안하는 의미이다.
(3) • 담화는 생각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문장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언어 단위이다.
• 담화의 구성 요소에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시간과 장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

2 담화의 맥락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중심으로 담화를 살펴보자.

- (1) 선생님께서 학생이 늦게 온 것을 꾸짖은 것인데, 학생이 선생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시간을 말하였기 때문이다.

- (2) • 선생님,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 알람 소리를 못 들어서 늦잠을 잤어요. 죄송해요.

(3)

상황 맥락	→	의미
•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는 동생에게 말하는 상황		• 게임을 그만하고 빨리 잠을 자기를 바람.
• 어린 자녀에게 시계 보는 방법을 가르치는 상황		• 시계 보는 방법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려 함.
• 다른 친구와 함께 약속 장소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상황		• 약속 시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려 함.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담화를 살펴보자.

- (1) • 잘못 이해한 말: 쌀을 사서(쌀을 사다)

- 잘못 이해한 이유: 고모가 사는 지역과 주연이가 사는 지역에서 '쌀을 사다'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 고모는 '쌀을 사다'라는 말을 '쌀을 팔아 돈을 마련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지만, 주연이는 '돈을 주고 쌀을 사서 오다'라는 의미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 (2) 역사적·사회적 상황, 공동체의 가치, 세대, 문화 등

3 담화의 특성

- (1) •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 4층에는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 매장이 있습니다.
• 통일성을 해치는 까닭: 승강기 안에서 일어난 방귀 사건과는 관련 없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2) 승강기가 5층에서 멈추고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타자마자 모두 얼굴을 찡그리며 코를 킁킁거리는 겁니다. 그러다가/그리고 코를 막으며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됐다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그러나/그렇지만 묵묵히 앞만 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더 방귀 편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0층을 올라가는 게 100층을 올라가는 것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학습활동 응용 문제

p.146~147

- 1 ⑤ 2 ④ 3 ④ 4 ③

차근차근 개념 체크

p.148

- 01 담화 02 화자, 청자, 맥락 03 상황 맥락
04 공동체, 세대, 지역 05 ①-ㄴ, ②-ㄷ, ③-ㄷ, ④-ㄷ
06 거절, 문화 07 주제, 지시어 08 떡볶이, 맛 09 의도, 정확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49~151

- 01 ③ 02 ⑤ 03 ④ 04 ③ 05 남학생은 은행의 위치를 알려 달라는 의미로 질문했지만, 아이는 은행의 위치를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말로 이해했다. 06 ③ 07 ④
08 ⑤ 09 우리나라에는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겸손하게 말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를 모르는 외국인인 주인이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 놓고 차린 것이 없다고 말하자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다. 10 ④
11 ④ 12 쌀을 사서(쌀을 사다), 지역 13 ⑤ 14 ③

03 한글의 창제 원리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52~154

- 1 X 2 X 3 애민 4 X 5 ③ 6 ㄱ 7 〇 8 ., -, | 9 ①
10 ⑤ 11 ㄴ, ㄷ, ㄹ, ㅁ 12 〇 13 〇 14 ㄴ, ㄷ



교과서 학습활동 미리보기

p.155~156

- ① 한글의 창제 정신 (1)-(b), (2)-(C), (3)-(a), 달라, 백성, 뜻, 편리하게
- ② 자음의 제자 원리
- ① ㄱ, ㄴ, ㄷ, ㄱ, ㅁ / 발음 기관 / ② 더해서 / (1) ㄷ (2) ㅈ
- ③ 모음의 제자 원리 ① 하늘, 땅, 사람 / —, ㅣ
- ② 모음의 기본 글자를 결합하여 ‘ㅏ, ㅑ, ㅓ, ㅕ’를 만들고, 여기에 다시 모음의 기본 글자를 합하여 ‘ㅗ, ㅛ, ㅜ, ㅠ’를 만들었다.
- ④ 한글의 우수성
- ① • 한글은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글자들의 모양이 비슷하지만, 영어 알파벳은 그렇지 않다.
- 한글은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리 나는 위치가 같은 글자들의 모양이 비슷하지만, 영어 알파벳은 그렇지 않다.
- ② • 한글 ‘ㅏ’는 항상 [아]로 소리 나는데, 영어 알파벳 ‘a’는 [에], [에이], [아]와 같이 여러 가지로 소리 난다.
-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릿값을 지니고 있어서 영어 알파벳보다 쉽게 읽을 수 있다.

학습활동 응용 문제

p.155~156

1 ④ 2 ③ 3 ② 4 ①

차근차근 개념 체크

p.157

- 01 문자, 한자, 평민, 한문 02 ①-㉠, ②-㉡, ③-㉢ 03 17, 11, 28
- 04 상형, 가획 05 ㄱ, ㄴ, ㄷ, ㅁ, ㅂ 06 상형, 합성
- 07 ㅏ, ㅑ, ㅣ 08 ㄱ, 허끝, ㅁ, 이, ㅁ 09 ㅏ, ㅑ, ㅣ, 천지인, 하늘, 땅, 사람
- 10 (1) ㄱ (2) ㄷ (3) ㅁ (4) ㅂ (5) ㅎ
- 11 ㅏ, ㅑ, ㅓ, ㅕ 12 ㅏ, ㅑ, ㅓ 13 소리, 한글 14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58~159

- 01 ② 02 ⑤ 03 ④ 04 ⑤ 05 ②
- 06 ④ 07 ‘ㅏ’는 하늘의 둥근 모양을, ‘ㅑ’는 땅의 평평한 모양을, ‘ㅣ’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08 ②, ⑤ 09 ④
- 10 ⑤ 11 ② 12 ③

4 | 듣기·말하기

01 마음을 나누는 대화

핵심 체크 | p.162

1 공유 2 감정 3 비언어적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62

1 ④ 2 ⑤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63~167

- 1 공감하며 듣기 2 ① 3 ④ 4 다양한 즐거움을 주는 것 5 ③
- 6 ① 7 아나바다 운동은 자원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이다. 8 ① 9 ③
- 10 준희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 11 ③ 12 상대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상대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대화를 원활하게 이끌어 가게 해 준다. 등 13 ④ 14 ⑤ 15 ⑤ 16 ③

핵심 포인트

p.164~167

핵심 포인트

01 말하는 이, 배경지식 02 반복

내용 한눈에 보기

p.168

의미	존중	배경지식	의미	공감
질문	반복	정리	고개	눈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69~170

- 01 네 말을 들으니까 여행에 그런 의미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02 ③
- 03 ④ 04 (마을 장터와 같은) 아나바다 운동이 자원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음에 열리는 마을 장터에 함께 가기로 약속했다.
- 05 ④ 06 ③ 07 ⑤ 08 고개를 끄덕이기, 지애의 말을 정리하여 말하기

5 | 쓰기

01 다양한 표현 활용하여 글 쓰기

핵심 체크 | p.174

1 속담 2 X 3 X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74

1 ③ 2 ②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75~177

- 1 ⑤ 2 ① 3 속담, 상황을 간결하고 재치 있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인상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4 ④ 5 ⑤ 6 ① 7 ③ 8 ⑤ 9 ④

핵심 포인트

p.175~177

핵심 포인트

01 관용 02 명언 03 유명인

내용 한눈에 보기

p.178

관용구	등산	교훈	관용구	억지로
-----	----	----	-----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79~180

- 01 ④ 02 ④ 03 ② 04 초콜릿 보기를 돌같이 하라. - 참신한 표현을 활용하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인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05 ④ 06 ⑤
- 07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멘다.
- 08 ②

1 | 문학

01 시

핵심 체크 | p.8~10

1 압축 2 화자 3 ○ 4 내재율 5 ○ 6 음보 7 ○ 8 생생, 구체화 9 ○ 10 ○

개념 확인 문제

p.11

1 (1) 화자, (2) 운율, (3) 심상, (4) 비유 2 (1) ㉠, (2) ㉡, (3) ㉢ 3 (1) ㉡, (2) ㉢, (3) ㉡, (4) ㉢ 4 (1) 역설법, (2) 반어법

(1) 모진 소리

지문 내용 확인

p.12

1 ○ 2 ○ 3 정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3

01 ⑤ 02 ⑤ 03 ④ 04 ③ 05 ④
06 ④ 07 모진 소리가 나와 타인과 세상을 아프게 한다.

- 01 ‘쨍(쨍엿)’이라는 의성어와 ‘쿵쿵’이라는 의태어를 사용해 상처받은 마음을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02 ‘내 모진 소리를 자주 생각했을 / 내 모진 소리에 무수히 정 맞았을 / 누군가를 생각하면’에 자신이 혹시 모진 소리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03 이 시에서는 모진 소리가 나와 타인, 세상에 상처를 준다는 것을 주제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모진 소리를 한 학생이 지난 일을 잊고 활기차게 지내는 모습을 통해 이러한 주제 의식을 드러내기는 어렵다.
- 04 ㉠은 ‘쨍엿’이라는 단어를 활용한 청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은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친다는 표현으로 청각적 심상을 나타내고 있다. ㉠은 ‘어두운’과 ‘바알간’의 시각적 심상, ㉡은 ‘땀’이라는 미각적 심상, ㉣은 ‘온기’라는 촉각적 심상, ㉤은 ‘짜지도’, ‘싱겁지도’라는 미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 05 ‘정’은 돌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도구로, 정을 친다는 것은 가슴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06 ‘금이 간다’는 것은 서로의 사이가 벌어지거나 틀어진다는 의미로, 관계가 멀어지거나 단절되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에서 모진 소리 때문에 ‘세상에 금이 간다’는 것은 모진 소리 때문에 세상도 상처를 입고, 사람들 사이가 틀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07 화자는 모진 소리를 들으면 자신이 한 말이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한 말이 아니어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내뱉은 모진 말에 상처받았을 누군가를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면서, 모진 소리가 결국은 세상까지 아프게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2) 별

지문 내용 확인

p.14

1 X 2 별 3 어둠, 대낮 4 긍정적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5

01 ④ 02 ㉠: 대낮, ㉡: 어둠 03 ⑤ 04 ③
05 ④ 06 ① 07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다.

- 01 ‘색채어’란 색을 나타내는 말을 뜻한다. 이 시에서는 ‘밝음’과 ‘어둠’의 대조적인 시각적 이미지는 드러나지만 구체적인 색채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 02 이 시에서 ‘대낮’과 ‘어둠’은 대조적인 시어로 ‘대낮’은 시련이나 고통이 없는 삶을, ‘어둠’은 그것을 경험한 삶을 의미한다.
- 03 ㉣은 ‘대낮’을 ‘어둡다’라고 모순되게 표현함으로써 화자의 의도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즉 ‘지금 대낮인 사람들’이 시련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아 꿈과 희망을 갖지 않고 있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으므로, ‘지금 대낮인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 04 마지막 행의 ‘어둡다’는 ‘대낮’인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이나 희망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이와 가장 가까운 의미는 [1]~[4]의 ‘희망이 없이 참담하고 막막하다.’이다.
- 05 이 시에서 ‘별’은 고단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희망이나 꿈을 상징한다. 그리고 <보기>의 ‘별’은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볼 수 있는 순수하고 깨끗한 존재로 볼 수 있다.
- 06 이 시에서는 ‘밝음’과 ‘어둠’이라는 시각적 심상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에는 시각적 심상, ㉡에는 청각적 심상, ㉢에는 후각적 심상, ㉣에는 촉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에서는 구체적인 감각적 심상이 사용되지 않았다.
- 07 이 시에서는 어두워야 ‘별’이 보인다고 하여, 현재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래에는 꿈과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전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잠 못 든 이’에게 ‘편지’와 ‘새 살’이라는 위로를 전하고자 하고 있다.

(3) 따뜻한 말

지문 내용 확인

p.16

1 X 2 ○ 3 의태어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7

01 ⑤ 02 ⑤ 03 ④ 04 ③

05 따뜻한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져 살며시 미소를 짓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나타냈다.

- 01 이 시는 '사르르'와 '활짝'이라는 의태어를 사용해 따뜻한 말 덕분에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인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02 <보기>에서는 모진 소리를 듣게 되는 상황을 '정'을 맞는 것에 비유하여 나타내고 있고, 이 시에서는 따뜻한 말을 듣는 것을 '가슴에 빛이' 드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역설적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 03 이 시에서 <보기>의 '늑골에 정을 친다'에 대응되는 시구는 '가슴에 빛이 든다'이다.
- 04 ①에는 '따뜻한'에서 촉각적 심상을 느낄 수 있다. ③에는 '서늘'이라는 촉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다. ①은 '아우성'에서 청각적 심상, ②는 '타박타박'에서 청각적 심상, ④는 '소리'라는 청각적 심상, ⑤는 '피에 젖은'에서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 05 '사르르'와 같은 의태어를 사용하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보다 감각적, 인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4) 나룻배와 행인

지문 내용 확인

p.18

1 나룻배 2 X 3 X 4 바람, 눈비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9

01 ③ 02 ④ 03 ③ 04 ④ 05 ④

06 ④ 07 ① 08 '당신'은 '나'를 짓밟고 돌아보지도 않고 가는 것으로 보아, '나'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정하다.

- 01 이 시는 '-니다'라는 경어체의 평서형 문장을 반복하여 화자의 진실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02 '나'는 무정한 '당신'을 원망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믿고 헌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03 '바람'과 '눈비'는 '나'가 '당신'을 기다리며 겪어야 하는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는 시어이다.
- 04 <보기>에 나타난 시대적 배경과 작가의 생애를 바탕으로 이 시를 해석하면, 화자인 '나'는 조국의 독립을 바라며 자신을 희생하는 독립운동가, '당신'은 '나'가 기다리는 조국의 광복

이라고 볼 수 있다.

- 05 '나룻배'는 '행인'이 강을 건너가게 해 주는 수단으로, '행인'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존재이다. 화자는 자신을 이러한 '나룻배'에 빗댄으로써 대상에 대한 인내와 희생을 드러내고 있다.
- 06 ①은 '나'를 '나룻배'에 비유한 은유법이 쓰였다. ①은 과장법, ②는 의인법, ③은 반복법, ⑤는 직유법이 쓰였다.
- 07 ④에서 '당신'이 '나'를 '흙발'로 짓밟는다는 것은, '나'에 대한 '당신'의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준다.
- 08 '나'는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며 '당신'을 건네 주지만 '당신'은 '나'를 흙발로 짓밟고, 물을 건너 뒤에는 돌아보지도 않고 가는 무심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5) 저녁에

지문 내용 확인

p.20

1 X 2 밝음, 어둠 3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21

01 ⑤ 02 ⑤ 03 ⑤ 04 ④ 05 ②

06 ② 07 비슷한 어조의 어구를 짝 지은 대구법과 서로 반대인 내용을 대비하여 표현하는 대조법을 활용하였다.

- 01 이 시는 밤이 점점 깊어지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이 시의 구성 방식은 시간의 순서에 따른 순행적 구성임을 알 수 있다.
- 02 이 시의 제목 '저녁에'의 '저녁'은 '나'와 별의 만남을 가져오는 시간이자 이별을 예고하는 시간으로 '나'로 하여금 내면적으로 성찰하게 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에서 '저녁'이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3 이 시에 사용된 주된 심상은 시각적 심상이다. ⑤에는 공감각적 심상(청각의 시각화)이 사용되었다.
- 04 별은 밝음 속에서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서 사라지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두 존재가 어둠 속에서 사라지는 공동 운명체라고 할 수 없다.
- 05 이 시에서 '나'는 별과의 특별한 만남을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음을 알지만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그 허무감을 극복하고 있다.
- 06 이 시에서의 '별'은 '나'와 대면하고 관계를 맺는 소중한 존재이다. ②의 '너'는 '나'가 기다리는 소중한 존재이므로, 관계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07 2연에서는 대구법과 대조법을 활용하여 별과 '나'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6) 낙화

지문 내용 확인

p.22

1 하강적 2 X 3 은유법, 의인법

차곡차곡 실력 체크

p.23

01 ③ 02 ② 03 ② 04 ⑤ 05 ②
06 ② 07 ② 08 <보기>는 '결별'은 슬픔을 가져온다는 의미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A]는 '결별'이 '축복', 즉 영혼의 성숙을 가져옴을 나타내고 있다. 즉 [A]에서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의도를 참신하게 드러내면서 강조하고 있다.

- 01 이 시는 꽃이 떨어지는 자연 현상(낙화)에서 '이별'이라는 인생사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 02 이 시에서 '가을'은 '낙화' 후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이자 성숙의 시기를 의미한다.
- 03 각각 '사랑(꽃)', '청춘', '낙화의 모습'을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처럼 표현하였다.
- 04 ①~④는 겉으로 보기에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된 시구이며, ⑤에는 속뜻을 숨기고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 05 '봄 한철'은 꽃이 피어나는 시기로, 이별하기 전의 사랑이 충만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06 ①, ③, ④, ⑤는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들로, 쓸쓸하고 안타까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 07 '결별'은 꽃이 지는 상황의 이별을 의미하지만, 꽃이 진 후 열매가 열리듯 ㉠은 이별을 통한 영혼의 성숙을 의미한다.
- 08 <보기>의 '결별이 이룩하는 슬픔'은 결별이 환기하는 일반적인 정서를 드러낸 표현인 데 비해, [A]의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은 표면적으로 모순된 표현을 통해 '결별'이 성숙을 가져온다는 의미를 인상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7) (가) 훈민가 / (나) 두꺼비 파리를 묻고

지문 내용 확인

p.24

1 ○ 2 X 3 ○

작품 한눈에 보기

p.24

상부상조 백성 백승골

차곡차곡 실력 체크

p.25

01 ⑤ 02 ④ 03 ⑤ 04 ④ 05 ①
06 ⑤ 07 (가)는 평시조로 3장 6구 45자 내외의 정해진 형식을 지고 있으나, (나)는 중장이 4 음보 이상으로 길어진 사설시조이다.

- 01 문학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작품이 만들어진 시대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당시의 가치관, 관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감상해야 한다. 독자가 현대인이라 하여 오늘날의 시각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 02 (가)는 평시조로 4음보의 정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 03 글쓴이는 양반인 자신의 신분을 앞세워 명령하며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농민을 화자로 대신 세워 평등한 관계에서 권유 하듯 말하고 있다.
- 04 이 작품은 중간 계층인 두꺼비의 무능함과 비굴함을 희화화 하여 풍자하고 있다. '파리'는 일반 백성을 상징하는 소재로 풍자 대상이 아니다.
- 05 자기 변명을 하는 허세 가득하고 언행의 앞뒤가 맞지 않는 두꺼비의 모습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허장성세'이다.
- 06 '피명'은 두꺼비에게 닥칠 뻔한 고통을 의미하는 것일 뿐, 암울한 현실과는 관련이 없다.

02 소설

핵심 체크 | p.26~28 |

1 허구 2 갈등 3 ○ 4 서술자 5 ○ 6 X 7 묘사
8 ○ 9 ○

개념 확인 문제

p.29

1 (1)-㉠, (2)-㉡, (3)-㉢ 2 (1)㉠, (2)㉢, (3)㉡, (4)㉠ 3 ㉠ 풍자, ㉢ 해학

(1) 내가 그린 히말라야시다 그림

잠깐! 소설 미리보기

p.30

삶 성인

차근차근 내용 체크

p.31~36

1 ④ 2 ③ 3 ③ 4 ④ 5 친구의 아들이 그림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여 재능을 살릴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6 ③ 7 ② 8 ③ 9 ④
10 ①, ④ 11 번호에 얹힌 잊지 못할 사건이 있기 때문이다. 12 ④
13 장원을 한 것이 기뻐서 /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14 ⑤
15 ③ 16 ① 16 ④

- 1 작가의 인생관이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수필의 특징이다. 이 글은 등장인물 '나'가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로, 과거를 회상하는 '나'의 심리가 자세히 드러나며, <0>과 <1>의 서로 다른 '나'의 서술이 교차되고 있다.

- 2 (다)로 보아 <0>의 '나'의 아버지는 자신을 유심히 관찰하던 천수기 선생님이 화방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화방에서 우연히 천수기 선생님을 만났다.
- 3 <1>의 '나'는 백선규의 그림에 나타난 김정색이 천진무구한 소녀의 눈동자보다 더 검다고 평가하고 있을 뿐, 백선규의 그림에 천진무구한 소녀의 감성이 드러난다고 본 것은 아니다.
- 4 그림에 재능이 있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그림을 포기한 사람은 <0>의 '나'의 아버지이다.
- 5 선생님은 <0>의 '나'도 아버지처럼 그림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여 최대한 기회를 주기 위해 '나'를 사생 대회에 보내려 하였다.
- 6 <0>의 '나'의 아버지는 '나'가 장원을 했다는 기쁜 소식에도 씩스름게 웃기만 하는 것으로 보아 무뚝뚝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7 (차)에서 <1>의 '나'는 글짓기에 재능이 없어 군 학예 대회 글짓기 백일장에 나가지 못했다고 하였다.
- 8 <1>의 '나'는 사생 대회에서 만난 녀석의 지저분한 차림과 간장 냄새에 머리가 아파 자리를 옮기고 싶었다고 하였다.
- 9 ㉔에서 여자아이는 가난해 보이는 '나'를 피하고 싶어 한다.
- 10 <0>의 '나'는 3학년 때 사생 대회에서 장원을 받은 이후로 친구보다 그림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 11 <0>의 '나'가 124번을 잊어버릴 수 없는 번호라고 한 것은 이후에 번호와 관련된 사건이 이어질 것임을 암시한다.
- 12 이 글이 한 서술자에 의해서만 서술되었다면 한 사건에 대한 하나의 관점만 드러날 것이므로 두 서술자에 의해 서술된 것보다 다양한 해석은 할 수 없을 것이다.
- 13 <0>의 '나'는 장원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긴장과 초조함이 완화되면서 안도감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 14 <1>의 '나'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으며,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귀찮은 일을 싫어한다. 아이들이 잘 자라 행복해하고 있을 뿐 아이들을 통해 못 이룬 꿈을 이루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 15 <0>의 '나'는 장원을 받은 그림이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으며, ㉔에서는 장원작을 그린 여자아이를 마주치고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눈을 감아버렸다.
- 16 <0>의 '나'는 장원을 받은 그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말하지 못해 갈등하고 있다.

- 17 (커)에서 <0>의 '나'는 자신보다 더 뛰어난 작품을 그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그림을 그리는 데 정성을 쏟았다고 하였다.

작품 한눈에 보기

p.37

갈등 화가 다양한

차곡차곡 실력 체크

p.38~39

- 01 ② 02 ④ 03 ① 04 ① 05 같은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인물의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사건을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 사건에 대한 두 서술자의 서로 다른 관점과 심리를 비교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06 ③ 07 ④
- 08 ⑤ 09 이 글은 두 명의 '나'가 자신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어 인물의 심리를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데 비해, <보기>는 관찰자가 인물의 행동만을 묘사해서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01 이 글은 어른이 된 주인공이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역순행적 구성에 따라 내용이 전개된다.
- 02 (다)에서 '나'는 친구의 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나'를 사생 대회에 보낸 선생님으로 인해 사생 대회에서 장원을 하게 되었다. '나'가 선생님께 기회를 달라고 간청한 것은 아니다.
- 03 선생님이 자신의 친구 아들이 자신의 친구처럼 그림에 대한 소질이 있다고 믿었다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는 그림에 재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04 (마)의 '나'는 그림 과외를 받을 만큼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여자에 대한 차별적 가치관을 지닌 아버지의 말에 그림을 열심히 그리려던 생각이 없어졌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아버지에게 반항하거나 맞서지는 않았다.
- 05 이 글은 <0>의 '나'와 <1>의 '나'라는 두 서술자를 등장시켜 동일한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심리를 각자의 입장에서 제시하고 있어, 독자는 한 사람의 시선으로만 서술할 때보다 사건을 다각도로 볼 수 있으며 두 인물의 심리를 비교해 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 06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로, 갈등을 통해 전개되는 사건에 담긴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이 글에는 인물들의 내적 갈등이 주되게 나타난다.
- 07 <0>의 '나'는 수상작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자니 선생님 품에서 울었던 모습이 부끄럽고 자신에게 기대한 사람들에게 미안해서 사실을 말하지 못했고, <1>의 '나'는 상을 받은 아이가 좌절할 것과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 생각나 말하지 않았다.
- 08 ㉔에서 '나'는 장원작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것일 뿐 자신이 잘못된 것은 아니므로 두려워한다고 볼 수는 없다.

- 09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되었고 두 명의 서술자가 교차되고 있으나, 〈보기〉는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되었다.

(2) 달걀은 달걀로 갇으렴

잠깐! 소설 미리보기

p.40

달걀 한피

차근차근 내용 체크

p.41~46

- 1 ④ 2 ④ 3 닭을 길러 달걀을 판 돈으로 아이들의 여행 경비를 마련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4 ② 5 ④ 6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달걀에 대한 양감움으로는 너무 지나치다. 7 ⑤ 8 ⑤ 9 ② 10 도시 아이들을 두메로 초대하는 데 드는 여비 11 ① 12 ③ 13 ① 14 ② 15 ③ 16 ⑤ 17 ③ 18 ⑤ 19 ⑤ 20 ④ 21 ⑤

- 1 한피가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은 봄피를 나무라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 2 한피는 닭을 먹어 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다만 도시로 여행 가기 위해 닭을 기르는 것을 막고 싶을 뿐으로, 차라리 쌀을 팔아 여행을 가는 것은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
- 3 한피가 닭을 길러 달걀을 팔아 도시로 가는 일을 막고 싶어 하는 것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 4 한피는 여행을 가기 위해 암탉을 소중히 기르면서 달걀을 팔았다. 그런데 그런 달걀이 도시에서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난 것이다.
- 5 (다)에서 한피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달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고 울고 싶어졌다. (라)로 보아 한피는 그때 자신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처럼 분한 생각이 들었음을 알 수 있는데, ③의 상황에서도 상대방에게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비슷한 심정을 느꼈을 것이다.
- 6 (마)에서 문 선생님은 한피의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달걀은 달걀로 갇으라고 제안한다.
- 7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밖에 위치해 있으면서 작중 인물인 문 선생님과 한피의 대화뿐만 아니라 심리까지도 전달하고 있다.
- 8 한피는 말로는 기발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문 선생님의 계획에 공감하고 있지는 않다.
- 9 한피는 도시 아이들이 자신을 비롯한 시골 아이들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하고 있다.
- 10 문 선생님은 도시 아이들을 초대할 생각으로 달걀을 팔아 여비를 마련하자고 하고 있다.

- 11 (자)에서 문 선생님은 사물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사물의 많은 쓸모에 대해 골고루 알아 두어야 한다고 하며, 한피가 새롭게 배운 것에 대해 후회하거나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져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 12 한피는 도시 아이들이 두메에 오면 자신들을 업신여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13 ④는 문맥상 한피가 소중히 여기는 달걀을, 나머지는 모두 도시 아이들이 업신여기고 웃음거리로 삼은 달걀을 의미한다.
- 14 (차), (카)에서는 한피가 도시 문명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면 문 선생님이 자연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이를 반박하는 형식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 15 천제 과학관에서는 대낮에도 별자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한피가 한 말로, 문 선생님은 직접 별을 볼 수 있는 시골의 밤하늘의 가치를 말하였다.
- 16 [A]에서 비유의 방식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문 선생님은 먼저 동물원에 대한 한피의 생각을 인정한 후,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동물원과 자연을 대비하고 있다.
- 17 한피는 도시의 문명을 동경하면서, 도시 아이들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았고 주눅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기가 한 일 또는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인 '자격지심(自激之心)'과 의미가 통한다.
- 18 문 선생님은 도시 아이들도 나무나 풀의 이름을 잘 모르므로, 한피가 문명의 이기를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다.
- 19 (파)는 한피와 문 선생님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으로 소설의 결말에 해당한다.
- 20 이어지는 말에서 한피는 문 선생님의 얼굴을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선생님의 얼굴'이라고 하며 존경심을 드러내고 있다.
- 21 선생님은 달걀 때문에 도시 아이들에게 서운했던 한피에게, 달걀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도시 아이들을 두메로 초대하여 그들에게 두메의 가치를 알려 주는 것으로 갚자고 말하고 있다.

작품 한눈에 보기

p.47

봄피 공원 분수 동물원 밤하늘

차곡차곡 실력 체크

p.48~49

- 01 ④ 02 ③ 03 ⑤ 04 도시 아이들의 달걀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생긴 분한 마음을 달걀을 팔아 마련한 여비로 도시 아이들을 초대해 자연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갚으라는 의미이다. 05 ①
06 ② 07 ③ 08 너는 미술을 잘한다는 영진이와는 다른 장점이 있으니, 스스로를 영진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말자.

- 01 (마)에서 문 선생님은 문명의 이기를 모르는 것은 무식한 것이고, 풀과 나무는 몰라도 유식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02 (나)에서 한피는 문 선생님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도시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 03 문 선생님은 사물에는 많은 쓸모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쓸모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04 문 선생님은 도시 사람들이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하는 한피에게 ‘달같은 달같이 갚으렴’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두메로 초대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 05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바깥에 위치해 있으며, 한피와 선생님의 대화를 통해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 06 <보기>에서 ‘유수’는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흐르는 존재이다. 이 글의 ‘선녀 폭포’는 몇천 년을 한결같이 흘러왔다는 점에서 이와 성격이 유사하다.
- 07 ㉔에서 문 선생님은 도시에 있는 동물원에는 많은 동물이 있다는 한피의 생각에 공감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와 대비되는 두메의 장점을 말하면서 한피를 설득하고 있다.
- 08 문 선생님은 도시의 문명의 이기를 잘 몰라 무식쟁이로 여겨져 주눅이 들었다는 한피에게, 도시 아이들이 자연에 대해 잘 모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식한 것이라고 말한다. 즉 사물의 가치는 동등하며 각자의 장점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보기>에서 자신의 장점은 보지 않고 단점만 생각하며 스스로를 깎아 내리는 수연에게는 자신의 장점을 인식하도록 조언해 줄 수 있다.

(3) 두근두근 내 인생

잠깐! 소설 미리보기

p.50

아름 가상 책

차근차근 내용 체크

p.51~53

- 1 ④ 2 아름이가 희귀병에 걸렸다는 것 3 ③ 4 ③ 5 ② 6 힘들 때에는 편찮은 척하지 말고 솔직히 감정을 드러내세요. 7 ② 8 ③ 9 ④ 10 ③

- 1 아름이는 이전에 온라인 채팅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했었으므로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쓴 글을 받아 본 적이 있으나, 자신의 병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쓴 글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것이다.

- 2 아름이는 자신이 희귀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쓴 글을 읽는 것이 처음이라 긴장하고 있다.
- 3 아름이는 자신과 관련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가 예상하지 못한 음악 이야기가 나오자 당황하면서 실망하고 있다.
- 4 (라)에서 ‘나’는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별별 말들을 확인하다가 자신의 가족에 대한 격려 메시지를 찾아내고 있을 뿐, 자신의 부모를 비난하는 말을 찾거나 그에 상처를 받은 것은 아니다.
- 5 (마)의 글쓴이는 항암 치료를 받았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름이에게 공감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계 깊은 한자 성어는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인 ‘동병상련(同病相憐)’이다.
- 6 (마)를 쓴 사람은 세상에 저주를 퍼붓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하라며 ㉑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억지로 웃으며 참지 말고 힘들 때는 감정을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 7 이어지는 부분의 ‘자라는 건 놀랍고 어려운 일이에요.’라는 말을 통해 박수를 쳐 주는 것은 힘든 일을 한 아이들에 대한 격려의 의미임을 알 수 있다.
- 8 ‘나’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방송에 나간 것이나 게시판 글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으로 보아 ‘나’가 부모님을 원망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9 (아)의 내용으로 보아 글쓴이는 아름이가 선하게 자란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아름이는 희귀병에 걸려 공부나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이이다.
- 10 아름이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에 대해 공짜가 없는 세상에 살면서 교환이 아닌 손해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작품 한눈에 보기

p.54

아름 방송 출연 위로

차곡차곡 실력 체크

p.55

- 01 ④ 02 ⑤ 03 ⑤
04 소재-편지, 새살 / 역할-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는 역할을 한다.

- 01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로 주인공 ‘나’의 심리를 독백 형식으로 직접 드러내고 있다. 제시된 부분에 인물들의 대화를 통한 갈등은 두드러지지 않으며, (가)~(마)는 ‘나’가 읽은 글을 소개한 부분으로 장면마다 서술자가 교체된다고 볼 수는 없다.



- 02** (마)의 글쓴이는 아름이를 선하게 키운 것이 대단하다고 하며, 아름이의 부모에 대한 응원과 위로를 전하고 있다.
- 03** <보기>는 (바)에서 다른 사람의 반응에 감동을 받은 아름이의 심리와 관련한 메모이다.
- 04** (나)~(마)는 희귀병에 걸린 아름이를 위로하는 글로, 아름이는 이 글을 읽으면서 가슴 먹먹한 감동을 느끼게 된다. <보기>의 '편지'와 '새살'도 '잠 못 든 이'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는 존재이다.

(4) 소음 공해

잠깐!

소설 미리보기

p.56

가정주부 소음 인터폰 휠체어 슬리퍼

차근차근 내용 체크

p.57~61

1 ④ 2 ③ 3 ① 4 ③ 5 ④ 6 ③ 7 인터폰 8 ⑤ 9 ②
10 ② 11 ④ 12 우두망찰 13 ③ 14 ④ 15 휠체어 16 부끄러움. 17 ②

- 1** (가)는 소설의 발단 부분에 해당한다. 이 단계는 아직 구체적 인 갈등이 진행되기 전이다.
- 2** '나'는 교양 있는 중년 여성으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가족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 3** 이 글의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품 속의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 4** '가내 공장을 차렸나?'라는 것은 그만큼 소음이 심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적 배경을 드러낸다고 볼 수는 없다.
- 5** '나'는 위층에서 나는 소리를 '정체 모를 소리'라고 하였다. 이 부분을 통해서 위층 주인이 소리를 의도적으로 내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 6** 위층의 소음을 참기 힘들었지만, 최대한 교양과 품위를 지키며 항의하고 있다.
- 8** '전언'은 '말을 전함. 또는 그 말'을 의미한다.
- 9** 이 글에서 '나'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시달리며 괴로워하고 있다. 아파트 층간 소음이 갈등의 원인인 것이다.
- 10** '나'는 위층 여자가 자신이 잘못했으면서 도리어 뻔뻔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한다.
- 11** 자신의 교양을 드러내면서 소음을 줄이라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 12** '우두망찰하다'는 '정신이 얼떨떨하여 어찌할 줄 모르다'라는 뜻이다.

- 13** 화가 낮지만 침착하고 부드럽게 위층 여자를 설득하려던 '나'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 여자를 보고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 14** 화사한 담요가 하반신이 불편한 여자의 처지와 대조되어 위층 여자의 불편한 몸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 15** 위층 여자는 휠체어를 타야 하는 장애인이라서 소음을 줄이기 어려웠던 것이다.
- 16** '나'는 위층 여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슬리퍼를 선물하려 했던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 17** 이웃 간에 대화와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는 공간이다.

핵심 포인트

p.57~61

핵심 포인트

01 자원봉사자

03 경비원, 인터폰, 항의

04 슬리퍼, 휠체어

05 부끄러움, 휠체어

소주제

발단 주부

전개 소음

위기 인터폰

절정 장애인

결말 휠체어

작품

한눈에 보기

p.62

1	여운	소음	아파트	반전
외적	소음	반전	슬리퍼	

차곡차곡 실력 체크

p.63

01 ④ 02 ④ 03 ⑤ 04 등잔 밑이 어둡다

- 01** ④는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비판적 측면의 감상에 해당한다.
- 02** 소설을 읽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자신과 공동체에 적용하여 생각하는 것이 '내면화'이다. 이 소설을 읽고 나서 독자는 자신이 이웃과 얼마나 소통하고 살았는지 스스로 되돌아 볼 수 있다.
- 03** ㉠~㉢은 '위층의 소음'을 의미하며, ㉣은 위층의 소음으로 인해 방해받게 된 '피아노와 첼로의 멜로디'를 말한다.
- 04** 주인공이 처한 상황은, 어떤 대상에 대해 그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잘 모른다는 속담으로 표현할 수 있다.

(5) 소나기

잠깐!

소설 미리보기

p.64

조약돌 개울가 꽃뭉치 소나기 개울 그리워 호두

차근차근 내용 체크

p.65~67

1 ③ 2 조약돌 3 난 보랏빛이 좋아! 4 ② 5 ③ 6 소나기 7 ⑤
8 ② 9 ② 10 ⑤

- (가)와 (나)는 소설의 구성 단계 중 발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인물과 배경을 제시하고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 ‘조약돌’은 소년에 대한 소녀의 관심을 드러내는 소재이며, 소년과 소녀를 이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 이 글에서 소녀가 좋아하는 보랏빛은 결말에 나타나는 소녀의 죽음을 암시한다.
- 장검다리를 가로막고 있는 소녀에게 차마 비켜 달라는 말조차 못하고 기다리는 모습으로 보아 소년의 성격이 소극적(내향적)임을 알 수 있다.
- 농부가 등장하여 소나기가 올 것을 예고함에 따라 분위기가 어둡고 긴박하게 바뀌며 새로운 사건으로 전환하게 된다.
- ‘소나기’는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 곧 그치는 비로, 소년과 소녀의 짧은 사랑을 상징한다.
- 소년은 소녀의 말을 듣고 자신이 소녀를 업고 물이 불어난 개울을 건넌던 일이 떠올라 부끄러워하고 있다.
- 소녀는 소년을 좋아하는 마음에 대추를 건네주었다.
- ‘설상가상(雪上加霜)’은 불행한 일이 엮인 데 덮친 격으로 잇따라 일어남을 의미한다.
- 소녀는 소년과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 분홍 스웨터를 입힌 채로 묻어 달라고 한 것이다.

핵심 포인트

p.65~67

핵심 포인트

- | | |
|------------|--------|
| 01 소극적, 소녀 | 02 보랏빛 |
| 03 위기감, 사랑 | 04 대추 |
| 05 유언 | |

소주제

- | | |
|-----------|--------|
| 전개 소년, 소녀 | 위기 소나기 |
| 절정 사랑 | 결말 죽음 |

작품 한눈에 보기

p.67

간접적 짧고 긴장감 조약돌 도량

차곡차곡 실력 체크

p.68

01 ① 02 ⑤ 03 ② 04 소극적

- ‘소나기’는 시골에만 내리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통해 함축적 정서를 부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소설의 결말인 (마)에서는 소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

화를 통해 소녀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알리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소년의 반응은 드러나지 않는다.

03 ㉠은 소녀의 비극적 운명을 암시하기 위한 장치이다.

04 소녀는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성격이며, 소년은 수줍음이 많고 소극적인 성격이다.

(6) 춘향전

잠깐! 소설 미리보기

p.69

변학도 부정부패

차근차근 내용 체크

p.70~75

1 ⑤ 2 생일잔치, 계기 3 ④ 4 ⑤ 5 반어법 6 ④ 7 ① 8 ①
9 ③ 10 ③ 11 ① 12 ② 13 ④ 14 ④ 15 ⑤ 16 ㉠ 변학도의 횡포 ㉡ 이몽룡 17 ② 18 절개, 신분

- 본관 사또는 화려한 생일잔치를 벌이며 ‘잡인’은 금하고, ‘거지’는 들이지도 말라고 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배풀려 했다고 볼 수 없다.
- 어사또가 걸인 행세로 생일잔치에 들어오려고 하자 사령이 막는데, 이를 본 운봉이 변 사또에게 청해 어사또가 들어올 수 있게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 ‘오랏줄’은 죄인을 묶는 줄로 변학도에게 오랏줄을 지라고 말하는 것은 이몽룡이 변학도를 단죄할 것임을 나타낸다.
- ㉠에서 이몽룡은 다른 수령의 풍성한 상에 비해 아주 형편없는 음식이 차려진 자신의 상을 보고 발로 걷어차고 있다.
- 음식을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음에도 ‘술과 안주를 포식’했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와는 반대되는 말로 의도를 드러낸 반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화려한 잔치의 술과 안주가 백성들의 피와 기름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탐관오리의 횡포와 백성들의 고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백성들이 피를 흘린 것은 아니다.
- 운봉은 어사또의 시를 보고 ‘아뿔싸! 일 났다.’라고 하며 가슴이 철렁하여 공형을 불러 단속을 한다. 이를 통해 운봉은 이몽룡의 시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고 그의 정체를 눈치 챘음을 알 수 있다.
- 운봉이 이몽룡의 시를 보고 놀란 것은 시의 내용이 변학도의 횡포를 비판한 것이었기에 이몽룡이 암행어사임을 눈치 챘기 때문이므로 이를 통해 운봉을 소심한 인물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달’과 ‘햇빛’은 마패와 마패를 든 모습을 빗댄 표현으로 마패가 화려함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 10** [A]에서는 관리들의 엉뚱한 행동을 나열하여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서술자는 이들의 모습을 ‘가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 11** ㉠은 “어, 추워라.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목 마르다 물 들여라.”의 형태로 말해야 하나 단어의 순서를 바꾼 언어유희를 사용하여 웃음을 주고 있다.
- 12** 사건 전개 과정에서 ‘암행어사 출두’는 극적 반전을 통해 분위기를 전환하는 부분으로 이를 통해 변화도를 징벌하였으므로 갈등이 심화되는 계기라고 볼 수는 없다.
- 13** ‘어사또는 춘향의 마음을 떠보려고 짐짓 한번 다그쳐 보는 것인데’에서 ㉠은 춘향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지 떠보려고 한 말임을 알 수 있다.
- 14** (사)에서 춘향은 자신을 떠보는 어사또의 말에 기막혀하며 수청을 거부하는 뜻을 당당히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춘향이 의지가 강하고 당찬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15** ‘명관’은 현명한 관리를 이르는데, 춘향은 자신에게 수청을 강요하는 사또들을 ‘명관’이라고 표현하며 비꼬고 있으므로 반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16** ‘가을’과 ‘오얏꽃’은 중의적인 표현으로, ‘가을’은 계절을 나타내면서 이면적으로는 변화도의 횡포를 의미하며, 이몽룡의 성인 ‘이(李)’ 자의 ‘오얏’과 연결되는 ‘오얏꽃’은 꽃을 나타내면서 이면적으로는 이몽룡을 의미한다.
- 17** ㉠에서는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절개를 지킨 춘향과 현명하게 공사를 처리한 이몽룡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18** ‘정렬부인’은 춘향의 절개를 높이 평가해 임금에 내린 칭호로 양반들에게는 명예로운 칭호이다. 따라서 ㉠을 통해 춘향이 양반의 대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핵심 포인트

p.72 ~75

핵심 포인트

01 변화도
04 신분

02 탐관오리

작품 한눈에 보기

p.76

한시 오얏꽃 탐관오리

차곡차곡 실력 체크

p.77~78

- 01** ④ **02** ⑤ **03** ⑤ **04**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05** ③ **06** ② **07** ⑤
- 08** ③ **09** 단어의 위치를 뒤바꾼 언어유희를 통해 해학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10** 신분을 초월한 평등한 사회에 대한 갈망이 나타나 있다.

- 01** 춘향의 수절을 통해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지고지순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그리고 있으나 이는 당대의 가치관을 반영한 내용으로, 여성이 지켜야 할 변하지 않는 가치를 전해 준다고 볼 수는 없다.
- 02** 운봉이 이몽룡의 시를 본 후 그의 의도와 정체를 눈치 채고 단속을 하는 것은 고을 수령으로서 행동하는 모습일 뿐 비열한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다.
- 03** [A]는 변화도의 생일잔치에 참여한 상태에서 운봉의 제안에 따라 지은 시로, 백성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치스러운 잔치를 벌이는 변화도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04** (나)~(라)에서는 이몽룡이 변화도를 비판하는 시를 짓고 어사출두를 하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이로 보아 ㉠에서 ‘오랴’를 지라는 것은 변화도가 벌을 받게 되는 사건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05**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가)에 나타난 관리들의 모습은 당황한 모습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다.
- 06** (가)에서는 관리들이 허둥대며 도망가는 모습을 나열하여 과장적,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절제된 표현으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 07** [A]에서 춘향은 ‘높은 절벽’, ‘높은 바위’, ‘푸른 솔’, ‘푸른 대’와 같은 자연물을 활용해 자신의 심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은 인용하지 않았다. ‘명관’은 반어적 표현이다.
- 08** ‘높은 절벽’, ‘높은 바위’, ‘푸른 솔’, ‘푸른 대’는 ‘바람’과 ‘눈’이라는 시련에도 변하지 않는 춘향의 절개를 상징한다.
- 09** ㉠은 “어, 추워라.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목 마르다 물 들여라”라고 표현해야 하는 것을 단어의 위치를 뒤바꾸어 표현한 언어유희가 나타난다. 이는 어사출두 앞에서 당황한 변화도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웃음을 유발한다.
- 10** 조선의 신분 질서 속에서 기생의 딸인 춘향과 양반의 아들인 몽룡은 혼인할 수 없었으나, 둘은 시련을 극복하고 혼인하는 한편 (라)에서 춘향은 정렬부인의 칭호를 얻는다. 이러한 결말을 통해 평등한 사회에 대한 갈망을 엿볼 수 있다.

03 희곡

■ 핵심 체크 | p.79~80 ■

1 X 2 지시문 3 X 4 신 넘버(S#) 5 ○ 6 ○

개념 확인 문제

p.81

- 1** (1) 갈등, (2) 현재 진행형, (3) 대사, (4) 무대 상연 **2** (1) ㉠, (2) ㉡, (3) ㉢, (4) ㉣ **3** (1) 노래, (2) 안무가, (3) 서술자 **4** (1) -㉠, (2) -㉢, (3) -㉣

(1) 소나기

차근차근 **내용** 체크

p.83~90

1 ④ 2 ① 3 ⑤ 4 ④ 5 ④ 6 ④ 7 ③ 8 ⑤ 9 ③
10 소년을 좋아하는 소녀의 마음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 11 ① 12 ⑤
13 ④ 14 윤 초시의 혈육에 대한 정을 잘 나타낼 수 있다. 15 ① 16 ③
17 ② 18 ② 19 산삼을 구해서 소녀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이다.
20 ③ 21 ② 22 ③ 23 ①, ④ 24 소년과의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
하기 위해서이다. 25 ③ 26 ④ 27 (커다란 나무와 작은 소년을 대
비하여) 소녀를 잃은 소년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하기 위해서이다. 28 ①
29 ④ 30 ④

- 1 소년과 소녀가 비를 피하기 위해 수숫단 속에 들어가는 내용은 원작에도 나타나는 사건이다.
- 2 ①은 '장면 번호'로 촬영할 때 장면의 순서를 나타낸다. ②는 페이드 아웃, ③은 내레이션, ④는 클로즈업, ⑤는 몽타주이다.
- 3 소년의 등에 업힌 소녀가 소년의 목을 끌어안으면서 둘은 이성으로서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소년이 소녀를 업게 만든 흙탕물은 두 사람을 더욱 친근해지게 만드는 계기라고 볼 수 있다.
- 4 장터에서 '아저씨'가 소녀의 엄마 이야기를 했을 때 윤 초시가 화를 낸 것으로 보아 윤 초시가 소녀의 엄마를 비난한 것은 아니다.
- 5 소녀가 소년과 함께 비를 맞은 사건이 몸이 약한 소녀를 앓게 만든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소녀가 아픈 원인이 소년 때문인 것은 아니다.
- 6 ①에서 소년은 뛰어오는 사람이 소녀인 줄 알고 뛰어내리려 했지만 봉순이어서 얼른 몸을 숨긴다. 또한 봉순이 지나간 뒤 휘파람을 불고 발을 까불며 다시 소녀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아 설레면서 소녀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7 윤 초시가 집을 판 것에서 집보다 증손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소녀를 사랑하는 윤 초시의 태도로 보아 윤 초시가 소녀를 원망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8 소년은 소녀가 도랑을 건너면서 업혔을 때 소년의 등에서 진 흙물이 옮았다고 말하자 부끄러워하고 있을 뿐 불쾌해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 9 소녀는 아파서 며칠 동안 학교도 가지 못했다. 그래서 소년을 만나지도 못했고, 곧 이사도 가야 한다. 따라서 소녀의 가장 큰 소원은 병이 낫는 일일 것이다.
- 10 소녀가 건넨 것은 손수건에 쓴 대추로, 이 모습을 추가함으로써 소녀가 소년을 좋아하는 마음을 더욱 잘 드러낼 수 있다.

- 11 소녀가 준 대추를 먹다가 멈춘 이유는 소녀가 이사를 갈 것 같다는 말을 했기 때문으로, 소녀의 말을 듣고 놀란 심리가 행동에 담겨 있다.
- 12 조금 전까지 소녀가 준 대추를 맛있게 먹고 있었기 때문에 소년은 이사를 간다는 소녀의 말을 믿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소녀와 헤어지기 싫은 마음으로 ㉔과 같이 말했을 것이다.
- 13 아버지가 윤 초시 댁에 가져갈 닭을 고르는 것을 알고 큰 닭으로 가져가라고 하는 말에는 소녀를 위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 14 <S#88>은 원작 <소나기>에는 없는 내용으로, 윤 초시가 소녀의 병간호를 하는 모습은 소녀에 대한 윤 초시의 애정을 보여 준다.
- 15 ①은 소리를 나타내야 하는 부분이므로 효과음을 가리키는 'E'를 넣어야 한다. ②는 특정 화면을 크게 하는 것, ③은 화면을 겹치는 기법, ④는 삽입 화면, ⑤는 내레이션이다.
- 16 소년은 소녀가 아픈 것을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녀의 병이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자 했을 것이다.
- 17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년의 목소리에 돌아보며 웃는 것을 통해 소년에 대한 호감과 소년이 이름을 불러 주어 기쁜 마음을 알 수 있다.
- 18 <S#90>에는 산삼을 구하려는 소년과 산삼이 있는 곳을 알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봉순의 갈등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인물과 인물의 외적 갈등에 해당한다.
- 19 산삼을 구하지 못하자 허탈해하며 소녀를 떠올리는 소년의 모습을 통해, 소년이 소녀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산삼을 찾아 다녔음을 알 수 있다.
- 20 이 글은 드라마 대본이다. 드라마 대본은 서술자 없이 인물의 행동과 대사만으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성격 묘사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지는 않는다.
- 21 소년은 개울에 있는 돌을 모두 옮길 기세로 돌탑을 쌓는 한편, 소녀가 준 하얀 조약돌까지 돌탑에 얹는다. 이는 소녀가 병이 낫기를 바라는 소년의 마음이 간절함을 드러낸다.
- 22 소녀가 꽤때다 준 고무신이 떠내려가자 소년은 울상이 되어 고무신을 찾는다. 이는 소녀와의 소중한 추억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자 소녀의 죽음과 그로 인한 이별을 암시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
- 23 '불안정하게 돌아가는 눈동자',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다'는 소년의 심리를 행동을 통해 보여 주며, 부모님의 대사에 '소리'라고 제시된 것은 소년이 부모님의 말소리를 듣는 상황을 보여 준다.



- 24** 소녀가 그대로 입혀서 묻어 달라고 한 옷은 소년이 소녀를 업어주었을 때 입었던 옷이다. 따라서 소녀의 유언에는 소년과의 추억을 간직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다.
- 25** 소년은 소녀가 죽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방문을 열고 뛰쳐나간다. 소녀의 죽음을 믿지 못해 윤 초시의 집까지 뛰어가 소녀의 죽음을 확인한 뒤에는 가슴이 너무 아파 뒷걸음질 쳐 뛰어간다. 그러나 소녀를 따라 죽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볼 만한 행동은 찾을 수 없다.
- 26** 소년은 소녀의 죽음에 절망감과 상실감, 슬픔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며, 배신감을 느꼈다고 볼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 27** 소년을 작게 촬영한 것은 소년의 외로움을 부각하기 위한 장치이다.
- 28** 눈송이가 떨어지는 것은 계절의 변화(가을 → 겨울)와 소녀의 죽음 이후 시간이 꽤 흘렀음을 드러낼 뿐, 소년에게 시련이 생길 것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없다.
- 29** 'S#106'은 소년의 행동과 주변 풍경을 보여 주고 있을 뿐 내레이션이나 대사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내레이션으로 소년의 행동을 설명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30** 소년이 흰 조약돌을 물속에 그대로 두는 것은 더 이상 소녀와의 추억을 자신의 손에 넣고 다니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소녀를 잃은 슬픔을 이겨 내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핵심 포인트

p.84 ~90

01 봉순

05 눈송이

작품 한눈에 보기

p.91

순수한 봉순 가을

차곡차곡 실력 체크

p.92~93

- 01** ④ **02** ④ **03** ① **04** 소년은 소녀가 보고 싶어 개울가에서 기다리고 있다. **05** ④ **06** ③ **07** ⑤
- 08** 소녀의 죽음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이겨 내려는 소년의 마음이 담겨 있다.
- 01** 이 글은 드라마 대본이다. 따라서 서술자가 등장하지 않으며, 등장인물의 심리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
- 02** 'S#73'에서는 소설 <소나기>에서는 간단히 언급만 되었던 윤 초시가 등장하여 소녀를 위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S#73'의 추가는 소녀를 아끼는 윤 초시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 03** ㉠은 소년이 소녀를 업을 수밖에 없게 만든 상황으로, 소년과 소녀가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 04** 개울가의 징검다리는 소년과 소녀가 만난 곳이다. 소년이 그 근처에서 맴도는 것은 소녀를 자연스럽게 만나기 위한 행동이다.
- 05** (라)에서 소년이 소녀가 준 조약돌을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나 소녀가 했던 행동을 따라하는 모습에서 소녀를 잊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 06** 이 글에서도 인물의 대사와 행동,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심리가 드러난다.
- 07** 소녀가 좋아하던 도라지꽃이 이미 저 버렸다는 것은 소녀가 죽을 것임을 암시하는 장치이다.
- 08** 소녀와의 추억이 담긴 흰 조약돌을 꺼내지 않는 것은 이제 소녀와의 추억을 내려놓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은 소녀의 죽음으로 인한 상처를 이겨 내려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04 수필

핵심 체크 | p.94~95

1 수필 2 ○ 3 ○ 4 칼럼 5 개성 6 가치관

개념 확인 문제

p.96

- 1** (1) 개성 (2) 형식 (3) 솔직 (4) 교훈 **2** (1) X (2) ○ (3) X **3** (1) ㉠ (2) ㉠ (3) ㉠ **4** (1) 공 (2) 수 (3) 수 (4) 소

(1) 과학자의 서재

차근차근 내용 체크

p.97~100

- 1** ⑤ **2** ⑤ **3** ① **4** ⑤ **5** ② **6** ⑤ **7** 특히, 놀았다. **8** ⑤ **9** ② **10** ② **11** 설의법 **12** ⑤ **13** ② **14** ③ **15** 이타주의
- 1** (나)에서 글쓴이는 공을 차거나 딱지치기 같은 놀이를 하고도 시간이 남으면 반둥거렸다고 하였다.
- 2** 백과사전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을 필요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펼쳐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 3** ㉠은 백과사전을 읽다 보면 시간이 빨리 지나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4** (다)에서 글쓴이는 '나'가 살아가면서 만들어 온 원칙이나 삶의 자세는 《사랑의 학교》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 5** '나'는 이전까지는 몸으로 노는 것을 좋아했으나, 세계 동화전집을 읽고 난 뒤에는 생각에 잠기거나 무언가를 쓰는 시간이 많아졌다.

- 6 글쓴이는 《사랑의 학교》 속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정의와 진실을 지켜 나가는지가 들어 있다고 하였다.
- 7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에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 8 (차)에는 ‘나’가 동화 전집을 읽으며 시인을 꿈꾸게 되었다는 내용만 나와 있을 뿐, 시인이 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 9 이후에 (파)에서 언급한 자신의 전공에 영향을 미친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 10 (카)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노벨 문학상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그 전집이 무척 갖고 싶었다고 하였다.
- 11 의문형 표현을 사용하여 당연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 12 사회 생물학을 접한 후 수필을 읽으며 궁금해했던 개미의 행동의 이유를 알게 되면서, 사회 생물학을 전공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 13 솔제니친이 러시아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로 인해 추방을 당하였다는 내용 등을 통해 양심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14 솔제니친의 수필을 읽었을 당시에는 개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이후에 사회 생물학, 즉 과학적 접근을 통해 개미의 행동에 대해 이해했다.
- 15 자신을 희생해 남을 돕는 것을 ‘이타주의’라고 하였다.

핵심 포인트

p.99~100

02 생각

04 솔제니친

작품 한눈에 보기

p.101

백과사전 〈모닥불과 개미〉 노벨상 이타주의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02~103

- 01 ① 02 ② 03 ② 04 ⑤ 05 백과사전을 보면서 동물에 대한 호기심을 느꼈기 때문이다. 06 ④
- 07 ④ 08 (가)-㉠ (나)-㉡ (다)-㉢ (라)-㉣
- 09 ㉠ 철학적 ㉡ 공동체의 집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 01 글쓴이는 과거의 독서 경험과 그것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제시하면서 독서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 02 공부하다 쉬는 시간에 게임기만 만지는 요즘 아이들이 빈둥거릴 시간이 없어 상상력을 키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 03 이 글은 시간 순서대로 전개되는데, (다)는 초등학교, (라)는 고등학교 경험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간에는 중학교 때 경험이 들어가야 한다. 또한 (라)의 ‘우리나라 작품과는 ~’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우리나라 작품을 읽은 경험이 들어가면 자연스럽다.
- 04 ‘나’는 〈모닥불과 개미〉를 읽은 경험과 관련하여 사회 생물학을 평생 공부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 05 (마)에서 글쓴이는 평생 사회 생물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나)에서 백과사전을 읽으며 동물에 대해 호기심을 느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 06 (다)에서 노벨상 수상작을 읽고 우리나라 작품에서 얻을 수 없는 지적 호기심을 채웠다고 했는데, 이는 새로운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작품이 지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 07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나’가 아직 읽기의 즐거움을 몰랐을 때이다. 따라서 (나)에 제시된 동화 전집을 읽기 전의 모습을 보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08 소재목에는 그 문단의 핵심 내용이 압축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09 (라)에서 솔제니친은 상황을 철학적으로 받아들인 듯하다고 했다. ‘나’는 책을 읽은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하다가 사회 행동학을 공부한 이후에 ‘이타주의’의 개념으로 개미의 행동을 이해하고 있다.

(2) 열보다 큰 아홉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04~105

1 ④ 2 ⑤ 3 ① 4 ③ 5 변화 주기 6 노력, 아홉, 열 7 ⑤

- 1 수필은 자신의 경험과 그와 관련된 깨달음이나 정서를 자유롭게 쓰는 글로, 글쓴이의 정서가 겹으로 드러난다.
- 2 ㉠에서는 묻고 답하는 문답법이 사용되었다.
① 은유법, ② 대유법, ③ 의인법, ④ 직유법
- 3 ㉡에서는 ‘앞이 구만리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인용하였다.
- 4 (라)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를 것을 이룩한 완전한 수인 ‘열’보다는, 미래의 꿈과 그 가능성을 담은 수라는 점에서 ‘아홉’을 좋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 5 ④는 문답법, ⑤는 인용법, ⑥는 설의법, ⑦는 도치법으로 이들은 모두 변화 주기에 속한다.

- 7 글쓴이는 남들보다 모자란 것이 아닌가 스스로 괴로워하는 학생들에게 ‘아홉’이라는 수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고 조언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p.105

핵심 포인트

01 성공, 가능성

02 완벽

내용 한눈에 보기

p.106

완전 완전 설의법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07

01 ① 02 ④ 03 ④ 04 ③

05 모든 일에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았으며 아홉을 미래의 꿈과 그 가능성의 수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 01 ①은 ‘열’을 가리키고, ②, ③, ④, ⑤는 ‘아홉’을 가리킨다.
- 02 [A]에서는 아홉이 즐겨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예를 열거하고 반복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 03 ㉠에는 설의법이 사용되었다. ① 직유법, ② 의인법, ③ 대구법, 인용법, 대조법, ④ 설의법, ⑤ 영탄법
- 04 ‘구절양장’은 ‘굽이굽이 에워 도는 산굽이가 얼마인지 모르는 길’을 의미하므로 ㉠은 적절하지 않다.
- 05 우리 조상들은 완전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았고 부족한 가운데 더 나은 미래를 꿈꾸었다.

2 | 읽기

01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

핵심 체크 | p.110

1 정의 2 대조, 비교 3 구조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10

1 ③ 2 ③

- 1 ③은 악기를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분석은 ‘곤충의 몸은 머리, 가슴, 배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처럼 하나의 대상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개별적인 부분이나 성질로 나눈 것이다.
- 2 정전기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상황을 제시해야 하

므로 정전기를 활용하는 예를 보여 주는 ‘예시’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림에서 들려오는 소리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11~114

1 ③ 2 ④ 3 정의 4 ⑤ 5 색채와 기법, 구도를 통해 그림으로 나타냈기 6 ⑤ 7 ③ 8 ⑤ 9 ⑤ 10 ④ 11 ④ 12 ⑤

- 1 (가)의 시 마지막 구절 ‘분수처럼 흘러지는 푸른 종소리’는 공감각적 표현이 나타난 부분이다. 따라서 (가)는 이 글의 설명 대상인 공감각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끌기 위해 제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2 ㉠은 ‘종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분수’, ‘푸른’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한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에서도 ‘울음’이라는 청각적 이미지가 ‘금빛’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① 후각적 심상 ② 시각적 심상 ③ 미각적 심상 ④ 청각적 심상
- 3 ㉠에서는 ‘공감각’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정의는 말의 뜻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법으로 대상의 본질이나 속성을 설명할 때 쓰는 방법이다. ‘A는 B이다’의 형식을 취한다.
- 4 ㉠에서 그림 〈풍덩〉은 공감각을 보여 주는 예로 제시되었으므로 예시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예시의 설명 방법은 대상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 독자가 대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5 그림 〈풍덩〉은 색채, 기법, 구도라는 시각적 요소를 통해 ‘풍덩’이라는 청각적 요소를 형상화하여 공감각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 6 (라)는 그림 〈풍덩〉에서 소리를 눈으로 보이게 표현한 방법을 색채, 기법, 구도의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 분석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 7 다이빙하는 사람을 그렸다면 그 모습이 시선을 빼앗아 ‘풍덩’ 소리에 감각이 집중되지 않기에 사람을 그리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다이빙과 ‘풍덩’ 소리가 관련성이 적은 것은 아니다.
- 8 ‘아’가 글자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면 사람들이 글자로 인식하지만, 반대로 그려져 있으면 글자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선이나 모양, 질고 얇음에 관심을 갖게 되며, 따라서 거꾸로 쓴 ‘아’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9 (아)에서는 그림 〈아〉에서 ‘아’ 소리를 눈에 보이게 한 비결을, 그림을 ‘ㅇ’과 ‘ㅏ’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로 나누어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10 <아>라는 그림을 그린 김호득의 말을 그대로 직접 인용해 그가 한글의 형태를 빌려 그림을 그린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용에 해당한다.
- 11 (차)에서 글쓴이는 다이앤 애커먼의 말을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⑤는 안중근의 말을 간접적으로 인용한 것이다. ① 분석, ② 정의, ③ 구분, ⑤ 예시
- 12 예술가의 공감각 능력이 뛰어나므로 그들이 창조한 예술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공감각 능력을 향상시키자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p.111~114

핵심 포인트

01 공감각적

03 인용

내용 한눈에 보기

p.115

분석 ①-㉔, ②-㉑, ③-㉒, ④-㉓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16~117

- 01 ④ 02 ③ 03 ① 04 공감각이란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것을 뜻해요. 05 색채, 기법, 구도를 통해 '풍덩' 소리를 공감각적으로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 06 ④ 07 ① 08 ② 09 ⑤

- 01 (다)에서는 호크니의 그림 <풍덩>에 나타난 공감각을 색채, 기법, 구도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 02 ①은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난 부분이다. ③의 '종소리의 동그라미'는 청각의 시각화가 나타난 공감각적 표현이다. ①은 '서드런'에서 촉각적 심상, ②는 '돌 깨는 산울림'에서 청각적 심상, '금'에서 시각적 심상, ④는 '귀뚜라미'에서 청각적 심상, ⑤는 '향그러운'에서 후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 03 (라)에서 호크니는 <풍덩>은 사람의 모습에 눈길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 사람을 그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영을 하며 무더위를 식히는 사람의 모습은 나오지 않는다.
- 04 (가)의 마지막 문장에 공감각의 정의가 제시되어 있다.
- 05 (다)를 통해 <풍덩>에서 색채, 기법, 구도를 통해 '풍덩' 소리를 형상화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라)에서 이는 '풍덩' 소리를 공감각으로 느끼기를 바란 것을 알 수 있다.
- 06 (가)는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공감각의 예로 김호득의 그림 <아>를 제시했다.
- 07 (다)에 사용된 설명 방법은 분석이다. ①은 분석의 대표적인 예이다. ②는 소음의 뜻을 나타냈으므로 정의, ③은 소음을 '컬러 소음'과 '백색 소음'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분

류, ④는 백색 소음의 좋은 영향 때문에 백색 소음을 찾는 사람이 늘어날 것임을 설명하므로 인과, ⑤는 '컬러 소음'과 '백색 소음'의 차이를 나타내므로 대조에 해당한다.

- 08 다양한 색채가 아니라 먹물이 짙거나 얇은 것을 활용해 '아' 발음의 울림을 표현해 냈다.
- 09 (라)에는 작가 김호득의 말이 직접 인용되어 제시되었으며, (마)에는 다이앤 애커먼의 말이 간접 인용되어 제시되었다.

02 매체에 나타난 표현 방법과 의도

핵심 체크 | p.118

1 매체 2 의도 3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18

1 ⑤ 2 ②

- 1 동영상은 움직임이 나타나는 시각 자료이면서, 음성이나 음악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청각 자료가 포함된 복합 자료이다.
- 2 신문 기사는 기사를 쓴 사람의 의도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므로 항상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기사의 내용이 공정한지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꼼꼼이와 함께 읽는 매체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19~122

- 1 매체 2 ④ 3 ④ 4 ② 5 ⑤ 6 ② 7 (가)는 탐방 예약제를 긍정적으로, (나)는 탐방 예약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8 ② 9 ⑤
- 10 기사를 쓴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11 ④

- 1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책, 신문, 잡지, 텔레비전 등과 같은 것을 '매체'라고 한다.
- 2 상업 광고는 어떤 물건을 사게 하거나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인식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공익 광고는 생각이나 행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광고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는 것이 목적임을 알 수 있다.
- 3 광고에서 ②와 ③은 가방의 가벼움을, ①과 ⑤는 가방의 튼튼함을 나타내고 있다.
- 4 가방에 코끼리를 담아도 찢어지지 않고, 날아갈 듯 가볍다고 표현한 것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과장된 표현이다.
- 5 광고를 읽는 것은 광고를 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고 광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⑤는 광고와는 별개로 해당 물건의 품질에 관련된 것이다.



- 6 쓴 사람의 의도에 따라 제목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기사를 쓴 사람이나 기사를 싣고 있는 신문이 달라도 의도가 같다면 같거나 비슷한 제목이 붙을 수 있다.
- 7 (가)는 '살린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탐방 예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나)는 '불만 쏟아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탐방 예약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8 기사를 쓴 의도에 따라 기사 내용이 다른 신문 기사와 유사할 수도 있고 반대될 수도 있는 것이지, 무조건 다른 신문 기사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기사의 의도를 표현하는 방법인 것은 아니다.
- 9 (가)는 탐방 예약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 (나)는 부정적인 입장만이 드러나 있으므로 둘 다 어느 한쪽 견해에 치우쳐 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 10 사진이나 그림 등의 매체 자료는 글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글을 쓴 의도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 11 신문 기사의 길이는 내용의 중요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언제나 길이가 길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핵심 포인트

p.120~122

핵심 포인트

- 02 의도
04 부정적

03 제목

내용 한눈에 보기

p.123

긍정적 ①-㉔, ②-㉔, ③-㉔, ④-㉔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24~125

- 01 ①, ⑤ 02 ③ 03 ② 04 이 가방을 멘 학생이 우월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 05 ④
06 의도, 어느 한쪽 07 ② 08 ① 09 의도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어휘나 문장 표현,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여 표현한다.

- 01 “패션을 아는 사람의 필수품!”이라는 말은 이 가방을 사야만 패션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 줄 수 있다. 광고의 목적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학생과 같은 반응은 광고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코끼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튼튼하다는 표현이지만 과장된 내용이다.
- 02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그림은 기분이 좋아진다는 점이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가볍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03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산화 탄소는 줄이고 맑은 공기를 늘릴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이용이 자연을 지키는 길이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은 아니다.
- 04 (가)의 광고에서 가방을 멘 학생을 부러워하는 학생의 모습과 의기소침해 있는 학생의 모습을 통해 이 가방을 멘 학생이 우월한 것처럼 나타낸 것은 잘못된 생각을 심어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
- 05 (나)에서는 ‘논란’이라는 단어와, 등산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즉 ‘논란’이라는 단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 06 (가)와 (나)는 각각 탐방 예약제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관점의 기사로 한쪽의 견해에 치우쳐 있어 공정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기사를 읽을 때에는 기사의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 07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는 기사를 읽을 경우 두 기사에서 제시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읽고 두 기사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시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
- 08 이 기사에서 제목은 미세 먼지 때문에 하늘이 뿌옇다는 내용은 담고 있지만 미세 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제시하지 않았다. 미세 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신문의 본문에 제시되어 있다.
- 09 기사를 쓰는 의도는 제목에 사용된 단어나 문장 표현에 의해 잘 나타난다. 또한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시각 자료를 잘 활용하면 독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03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핵심 체크 | p.126 |

1 ○ 2 ○ 3 길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26

1 ④ 2 보약

- 1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은 간접 경험이다. 사람들은 모든 경험을 하면서 살 수는 없다. 따라서 책을 통해 간접적인 경험을 한다.
- 2 박지원의 소설을 읽고 정신세계가 마치 보약을 먹은 듯 넓어졌다고 표현했다.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27~128

1 ② 2 ②, ④ 3 ③ 4 책 5 그 책을 읽은 경험이 인생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그 책을 읽은 경험 때문에 소설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6 ④

- 1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던 특별 활동이므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 2 무협지와 박지원 소설의 공통점은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스러운 문체와 영웅적 인물의 활약을 다루는 이야기 전개 방식이다.
- 3 박지원의 소설은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지만 (마)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 4 박지원의 책을 읽으면서 정신세계가 마치 보약을 먹은 듯이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하다고 하였으므로 '보약'은 '책'을 의미한다.
- 6 ④는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게 해 준다는 것이다. 독서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핵심 포인트

p.128

핵심 포인트

01 문장, 정신 세계

02 진로, 정신문화

내용 **한눈에 보기**

p.129

도서반	인생	책	보약	정신세계
소설가	이상	책보	책방	책갈피
책씻이	책가위	책등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30~131

01 ⑤ 02 ② 03 ③ 04 ④ 05 한문을 번역한 듯한 문체와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 무협지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06 ③ 07 ④ 08 ③ 09 자연을 보호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간다.

- 01 이 글은 글쓴이의 어린 시절 독서 경험을 쓴 글로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는 액자 구성을 취하고 있지 않다.
- 02 (가)에 글쓴이가 왜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03 글쓴이가 선택한 책은 다른 아이들이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책이 아니므로 인기 많은 책이라고 할 수 없다.
- 04 글쓴이는,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고전 작품 대부분은 학생들이 읽지 않아 책 표지가 깨끗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고전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많은 학생들이 고전을 즐겨 읽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5 글쓴이는 무협지를 많이 읽어서 한문을 번역한 예스러운 문체와 영웅적 인물이 활약하는 이야기 전개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다.
- 06 독서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글쓴이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 07 박지원의 소설은 주인공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하고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나며 단단하고 품위 있는 문장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높은 정신세계를 경험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무협지와 구별된다고 하였다.
- 08 ㉠은 읽는 이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고전의 가치를 설명하는 구절이다. ㉡ 역시 정신을 살찌우는 고전의 가치를 '보약'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은 읽는 재미, ㉣은 문장의 아름다움, ㉤는 작가와 독자의 연결의 매개체가 되는 책의 기능, ㉥은 책이 보여 주는 인간다운 삶의 길을 비유한 표현이다.
- 09 <보기>에서 박병권은 "채근담"이 아니었다면 자연과 생명에 무관심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채근담"을 통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3 | 문법

01 정확한 발음과 표기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34~136

- 1 X 2 X 3 소리, 형태 4 표준 발음법 5 나았다 6 ⑤ 7 꼬치
8 X 9 ④ 10 넉짜카게 11 -, ㅙ 12 [차레], [가저]
- 4 표준어를 발음할 때 기준이 되는 발음상의 규칙과 규범을 정해 놓은 것을 표준 발음법이라고 한다.
 - 6 우리말의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고, 그 밖의 자음은 이 7개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된다.
 - 9 겹받침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④의 '맑지'는 [막찌]로 발음해야 한다.
 - 12 '레'는 반드시 [레]로 발음하므로 차레는 [차레]로 발음하고, 용언의 활용형인 '저'는 [저]로만 발음한다.

잠깐!

교과서 학습활동 미리보기

p.137~138

1 단어의 올바른 표기

- (1) 없음, 울.
(2) '없음'과 '업슴' 가운데 '없음'이 올바른 표기이다. '움'과 '웁' 가운데 '웁'이 올바른 표기이다.

2 받침의 발음

- (1) 박, 부엌, 남, 난, 남, 남, 남:깨, 히음, 남따, 안, 달, 감, 강, 삼, 솥
(2) 낯[낙], 앓다[안따], 낯대[날따], 외꿔[외꿔], 할대[할따], 없다[업:따], 닻[닥], 삶[삼:], 읊다[읍따], 맑게[말께], 뭉고[물꼬]

3 모음 'ㅡ'의 발음

우리예, 우리의, 희망, 띠엎띠엎, 의사, 주이, 주의

4 올바른 발음과 표기

- (1) [꼬치], [거시지], [발미테서], [꼬외에], [일코]
(2) • 맞는 표기: 쓰러질
• 표기에 적용된 원리: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법이 적용됨.

학습활동 응용 문제

p.137~138

1 ⑤ 2 ④ 3 ④ 4 ④

- 1 '만들다'라는 용언에서 어간은 '만들-'이다. 따라서 어간 '만들-'에 어미 '-ㅁ'이 결합한 형태를 나타낼 때에는 '만듬'이 아니라 '만들'로 표기해야 한다.
- 2 ① [난], [난], [히음] → [ㄷ] ② [밥], [습], [읍(따)] → [ㅂ]
③ [손], [언(따)] → [ㄴ] ⑤ [말], [여텔], [홀(따)] → [ㄹ]
- 3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ㅡ]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ㅣ]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므로 '예의를'은 [예의를](원칙), [예이를](허용)이라고 발음한다.
① [의사가] ② [저히] ③ [히망에] ⑤ [친구의/친구에]
- 4 '꽃 위에'와 같이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말('위')이 이어질 경우에는 받침소리를 대표음([ㄷ])으로 바꾸어 뒤 음절 첫소리로 발음한다. 받침소리가 제 음가(제 소릿값)대로 발음되려면 뒤에 오는 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조사, 어미, 접미사 등)이어야 한다.

차근차근 개념 체크

p.139

- 01 한글 맞춤법 02 소리, 의미 03 (1) 칠판, 설거지 (2) 연필깎이, 달걀말이 04 표준 발음법 05 ①-ㄷ, ②-ㄷ, ③-ㄷ
06 ①-ㄷ, ②-ㄷ, ③-ㄷ 07 의문, 무니 08 저, 찌, 처
09 벋틀 10 디그시 11 (1) 드러나요 (2) 무난하게

- 01 우리말의 표기와 관련된 원칙을 밝혀 놓은 것이 한글 맞춤법이다.
- 02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만 표기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우리말을 표기할 때에는 소리와 형태라는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다.

- 03 (1) '칠판'과 '설거지'는 [칠판], [설거지]와 같이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단어로,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법이 적용되었다. (2) '연필깎이'와 '달걀말이'는 [연필까끼], [달걀마리]와 같이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단어로, 단어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방법이 적용되었다.
- 04 표준어의 발음과 관련된 원칙을 밝혀 놓은 것을 표준 발음법이라고 한다.
- 07 'ㄴ'은 원칙적으로 [ㄴ]로 발음하지만 조건에 따라 [ㄹ]나 [ㄷ]로 발음하기도 한다.
- 08 'ㄷ'은 원칙적으로 [ㄷ]로 발음하지만 조건에 따라 [ㄴ]로 발음하기도 한다.
- 09 받침 '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인 조사 '을'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받침소리를 제 소릿값 [티]으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벼틀]로 발음해야 한다.
- 10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만날 때에는 원래 받침이 그대로 뒤로 옮겨지므로 [디그디]로 발음해야 하지만, 한글 자음 중 'ㄷ'은 실제 발음을 고려하여 [디그시]로 발음하기로 정했다. '즈, 츠, ㅋ, ㅌ, ㅍ, ㅎ'도 마찬가지이다.
- 11 (1) '드러나다'는 '들다'와 의미적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소리 나는 대로 '드러나다'로 표기한다. (2) '문안(問安)하다'는 옷 어른께 안부를 여쭙다는 뜻이다. 문맥상 별로 어려움이 없다는 뜻을 가진 '무난(無難)하다'를 사용해야 한다.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40~142

- 01 ④ 02 ④ 03 ④ 04 ⑤ 05 ③
- 06 뽕집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의미를 전달할 때에는 '닫혔어요'라고 표기해야 하는데, 신체에 상처를 입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인 '다쳤어요'라고 표기했기 때문이다. 07 ③ 08 ⑤ 09 ④
- 10 ⑤ 11 ③ 12 ④ 쓰러질 13 ③ 14 [여덜비다].
겹받침 'ㅃ'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이어질 때에는 겹받침 중에서 앞엿것은 앞 음절에 남고 뒤엿것은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15 ③ 16 ① 17 ④
- 18 ⑤ 19 ④

- 01 표준 발음법 제1항을 보면,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에 따라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 02 받침 'ㅈ'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조사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받침소리를 제 소릿값으로 뒤 음절로 옮겨 [비치]라고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남학생이 '빛이'를 [비치]라고 발음해야 여학생이 남학생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비지]라고 발음했다면 여학생은 '빛이'라는 말로 이해했을 것이다.

- 03 '낮'은 [난], '날개'는 [난개], '하늘'은 [하늘], '났다'는 [난따]로 모두 받침이 [ㄷ]으로 발음된다. 이와 달리, '짚다'는 [짐따]와 같이 받침이 [ㅁ]으로 발음된다.
- 04 '있음'의 기본형은 '있다'이고 어간은 '있-'이다. 어간 '있-'에 어미 '-음'이 결합한 형태를 나타낼 때에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있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바르다.
- 05 '웃이'에서 받침 'ㅅ' 뒤에 이어지는 말은 조사 '이'이다. 조사 '이'는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다. 이 경우 받침소리를 제 소릿값으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오시]와 같이 발음한다.
- 06 제시된 대화에서 준수는 빵집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엄마는 준수가 몸에 상처를 입었다는 의미로 이해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려면 준수는 '다쳤어요' 대신 '달렸어요'라고 표기해야 한다.
- 07 모음 'ㄴ'은 원칙적으로 [ㄴ]로 발음하므로 '의자'는 [의자]로 발음한다.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하므로 '흰'은 [힌]으로, '무늬'는 [무니]로 발음한다.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ㄴ'은 [ㄴ]나 [ㄹ]로 발음하므로 '거의'는 [거의/거이]로 발음한다.
- 08 '회의의'에는 모음 'ㄴ'이 두 번 사용되었다.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ㄴ'은 [ㄴ]나 [ㄹ]로 발음하므로 '회의'는 [회의] 또는 [회이]로 발음된다. 조사 'ㄴ'은 [ㄴ]나 [ㄹ]로 발음하므로 '회의의'는 [회의의/회이에] 또는 [회이의/회이에]로 발음된다.
- 09 '예'는 [예]로 발음하므로 '예절'은 [예절]로 발음하는 것이 옳바르다. '계절'은 [계:절/게:절], '시계'는 [시계/시게]로 발음한다.
- 10 받침 'ㅎ' 뒤에 'ㄷ'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이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ㅌ]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쌍다가는'의 올바른 발음은 [싸타가는]이다.
- 11 '발밑에서'의 올바른 발음은 [발미테서]이다. 받침 'ㅌ' 뒤에 오는 말인 '에서'는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므로 받침소리를 제 소릿값으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기 때문이다.
- 12 '쓰러지다'는 '쓰다'의 본뜻에서 떨어진 사례이므로 '쓰어지다'처럼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쓰러지다'로 적는다.
- 13 '별을'의 경우, 받침 '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결합되고 있으므로 받침소리를 제 소릿값으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벼를]로 발음한다.
① [말꼬] ② [마:느실] ④ [엍:써서] ⑤ [벼테]

- 14 겹받침 'ㅃ'이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고 있으므로 겹받침 중에서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여덜비다]로 발음한다.
- 15 세 단어는 모두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겹받침 중에서 뒤엣것만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늘거], [살:른], [짚:른]으로 발음한다.
- 16 '문안(問安)하다'는 웃어른께 안부를 여쭙다는 뜻이다. 별로 어려움이 없다는 뜻을 가진 말은 '무난(無難)하다'이다.
- 17 '오이소박이'가 올바른 표기이다.
- 18 겹받침 'ㅃ'은 자음 앞에서 [비]를 탈락시키고 [크]로 발음하기 때문에 '넓고'를 [널꼬]로 발음하는 것이다.
- 19 ① 첫 번째 받침 'ㅅ' 뒤에 오는 '웃'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므로 '웃'의 받침소리는 대표음([ㄷ])으로 바뀌고, '을'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으므로 '웃'의 받침소리는 제 소릿값([ㅅ])으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므로 [우도슬]이 정확한 발음이다. ② 겹받침 'ㄹ'은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되고, 뒤에 연결되는 'ㄷ'은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박따]가 정확한 발음이다. ③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될 경우 뒤엣것만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고 이때 'ㅅ'은 된소리로 발음하므로 [갑쓸]이 정확한 발음이다. ⑤ 조사 '의'는 [ㄴ/ㄹ]로 발음하므로 [꼬척/꼬제]가 정확한 발음이다.

02 담화의 개념과 특성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43~145

- 1 ○ 2 발화 3 ㉠, ㉡, ㉢, ㉣ 4 상황 맥락 5 상황 6 사회·문화적
7 ○ 8 X 9 ○ 10 의미 11 ㉣ 12 X 13 ○ 14 ○
15 통일성 16 응집성

- 11 시간이나 장소와 같이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면과 직접 관련된 맥락을 상황 맥락이라고 한다.

잠깐!

교과서 학습활동 미리보기

p.146~147

1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

- (1) • 담화의 참여자: 유미와 성현이 • 담화가 이루어진 장소: 교실
• 담화가 이루어진 시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 방과 후
(2) 같이 시험공부를 할 장소로 도서관이 어떤지 제안하는 의미이다.
(3) • 담화는 생각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문장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언어 단위이다.
• 담화의 구성 요소에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시간과 장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

2 담화의 맥락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중심으로 담화를 살펴보자.

- (1) 선생님께서 학생이 늦게 온 것을 꾸짖은 것인데, 학생이 선생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시간을 말하였기 때문이다.
(2) • 선생님,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 알람 소리를 못 들어서 늦잠을 잤어요. 죄송해요.

상황 맥락	→	의미
•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는 동생에게 말하는 상황 • 어린 자녀에게 시계 보는 방법을 가르치는 상황 • 다른 친구와 함께 약속 장소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상황		• 게임을 그만하고 빨리 잠을 자기를 바람. • 시계 보는 방법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려 함. • 약속 시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려 함.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담화를 살펴보자.

- (1) • 잘못 이해한 말: 쌀을 사서(쌀을 사다)
• 잘못 이해한 이유: 고모가 사는 지역과 주연이가 사는 지역에서 '쌀을 사다'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 고모는 '쌀을 사다'라는 말을 '쌀을 팔아 돈을 마련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지만, 주연이는 '돈을 주고 쌀을 사서 오다.'라는 의미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2) 역사적·사회적 상황, 공동체의 가치, 세대, 문화 등

3 담화의 특성

- (1) •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 4층에는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 매장이 있습니다.
• 통일성을 해치는 까닭: 승강기 안에서 일어난 방귀 사건과는 관련 없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2) 승강기가 5층에서 멈추고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타자마자 모두 얼굴을 찡그리며 코를 킁킁거리는 겁니다. 그러다가/그리고 코를 막으며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그러나/그렇지만 묵묵히 앞만 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더 방귀 똥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0층을 올라가는 게 100층을 올라가는 것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학습활동 응용 문제

p.146~147

1 ⑤ 2 ④ 3 ④ 4 ③

- 1 '도서관 어때?'라는 질문을 통해 성현이가 전달하고자 한 내용은 같이 시험공부할 장소로 도서관이 어떤지 제안하는 것이다.
2 ㉠은 수업 시간에 늦게 교실에 온 학생에게 선생님이 한 말이다. 즉 ㉠은 지각한 학생을 꾸짖으려는 의도에서 한 말이다.
3 (다)에서 고모는 '쌀을 사다'라는 말을 '쌀을 팔아 돈을 마련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했는데, 주연이는 이를 '돈을 주고 쌀을 사서 오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여 오해가 발생하였다.
4 (바)는 승강기 안에서 일어난 방귀 사건을 주제로 한 담화인데, ㉠은 이러한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어서 글의 통일성을 해친다. 그러나 ㉠이 앞 문장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다.

차근차근 개념 체크

p.148

- 01 담화 02 화자, 청자, 맥락 03 상황 맥락
04 공동체, 세대, 지역 05 ①-㉠, ②-㉡, ③-㉢, ④-㉣
06 거절, 문화 07 주제, 지시어 08 떡볶이, 맛 09 의도, 정확

- 01 의사소통 상황에서 머릿속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문장들이 모여 담화를 이룬다.
02 담화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담화가 이루어지는 맥락,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03 시간이나 장소와 같이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면과 직접 관련된 맥락인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담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04 역사적·사회적 배경, 공동체의 가치, 세대, 지역, 문화, 관습 등과 관련된 맥락을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한다.
06 외국인인 줄리엣은, 우리나라에는 예의상 한 번 거절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손님에 손님의 말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07 담화는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추어야 한다.
08 (가)의 앞에 제시된 해설자의 말과 질문을 고려할 때 담화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려면 (가)에는 떡볶이의 맛을 평가하는 손님의 반응이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09 담화의 특성을 이해하면 상대와 좀 더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49~151

- 01 ③ 02 ⑤ 03 ④ 04 ③ 05 남학생은 은행의 위치를 알려 달라는 의미로 질문했지만, 아이는 은행의 위치를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말로 이해했다. 06 ③ 07 ④
08 ⑤ 09 우리나라에는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겸손하게 말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를 모르는 외국인은 주인이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 놓고 차린 것이 없다고 말하자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다. 10 ④
11 ④ 12 쌀을 사서(쌀을 사다), 지역 13 ⑤ 14 ③

- 01 담화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가 누구인지, 상황 맥락이 어떠한지, 사회·문화적 맥락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02 담화의 상황을 고려할 때, '나만 믿어.'라는 누나의 말은 놀이 기구가 무서워 보여 놀이 기구 타기를 주저하는 동생을 안심시키려는 의도에서 한 말임을 알 수 있다.
03 제시된 대화는 담화의 구성 요소인 화자와 청자, 상황 맥락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 담화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불편하지만 무엇인가를 함께 쓰기로 하는 대화의 내용으로 볼 때, ④의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화로 볼 수 없다.

- 04 (가)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손님과 음식점 주인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이고, (나)는 치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와 치과 의사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이다. 이러한 담화 상황을 고려할 때 ‘식사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는 (가)에서는 음식의 맛과 접대 태도에 만족했는지 묻는 의미이고, (나)에서는 식사할 때 치아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묻는 의미이다. 따라서 (가)의 질문에는 음식의 맛이나 접대와 관련한 대답이, (나)의 질문에는 치아나 잇몸 등의 상태에 관련한 대답이 어울린다.
- 05 “너 은행이 어디 있는지 아니?”라는 질문의 의미를 아이는 은행의 위치를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말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럼요, 알아요.”라고 대답하고 가던 길을 갔다. 그러나 남학생은 은행의 위치를 알려 달라는 의미로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의 반응에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 06 ‘내려요.’라는 말은 ㉠의 상황에서 쓰였다면 ㉡의 의미를, ㉢의 상황에서 쓰였다면 ㉣의 의미를, ㉤의 상황에서 쓰였다면 ㉥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07 담화가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려면 (가)에는 해설자의 말과 연결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해설자는 떡볶이의 맛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가)의 바로 앞에서도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가)에는 떡볶이의 맛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손님 4의 말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하다.
- 08 ㉠은 ‘금세 하얀 민낯을 드러내는 일반 떡볶이와는 달리 몇 번을 행귀 내도 두꺼운 양념을 자랑한다는 점’을 가리키는 지시어이다. ㉡과 같은 지시어를 사용하면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 담화를 간결하고 자연스럽게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을 ‘금세 하얀 민낯을 드러내는 일반 떡볶이와는 달리 몇 번을 행귀 내도 두꺼운 양념을 자랑한다는 점’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9 우리나라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나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말할 때 있는 그대로 말하기보다는 겸손하게 낮추어 표현하는 문화가 있다. 이러한 언어문화에 익숙한 주인은 푸짐하게 음식을 차려 놓고도 차린 것이 없다고 겸손하게 말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를 모르는 외국인은 주인이 푸짐한 상차림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했다고 여겨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 10 “도서관 어때?”라는 말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같이 시험공부하자는 유미의 말을 듣고 한 말이다. 따라서 이는 같이 시험공부할 장소로 도서관이 어떤지 제안하는 의미이다.
- 11 (나)에서 “5분 남았을걸.”은 수업 시작 5분 전이라 탁구를 치러 나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12 농촌에서는 쌀을 팔아 돈을 마련하다는 의미로 ‘쌀을 사다’라는 말을 사용한다. 고모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쌀을 사다’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러나 사는 지역이 다른 주연이는 이러한 맥락에서 쓰이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13 (가)와 (나) 모두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이다. 다만 담화 참여자가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14 ㉣ 뒤에는 앞의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문장들이 긴밀하게 연결되려면 ㉣에는 역접의 접속사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03 한글의 창제 원리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52~154

1 X 2 X 3 애민 4 X 5 ㉢ 6 ㄱ 7 〇 8 ㆍ, ㅡ, ㅣ 9 ①
10 ㉤ 11 ㅏ, ㅑ, ㅓ, ㅕ 12 〇 13 〇 14 ㄴ, ㄷ

9 모음자의 기본자인 ‘ㆍ’는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

10 ‘ㄱ’은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

잠깐!

교과서 학습활동 미리보기

p.155~156

① 한글의 창제 정신

(1)-(b), (2)-(C), (3)-(a), 달라, 백성, 뜻, 편리하게

② 자음의 제자 원리

①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 발음 기관

② 더해서 / (1) ㄷ (2) ㅌ

③ 모음의 제자 원리

① 하늘, 땅, 사람 / ㅡ, ㅣ

② 모음의 기본 글자를 결합하여 ‘ㅏ, ㅑ, ㅓ, ㅕ’를 만들고, 여기에 다시 모음의 기본 글자를 합하여 ‘ㅗ, ㅛ, ㅜ, ㅠ’를 만들었다.

④ 한글의 우수성

① • 한글은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글자들의 모양이 비슷하지만, 영어 알파벳은 그렇지 않다.

• 한글은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리 나는 위치가 같은 글자들의 모양이 비슷하지만, 영어 알파벳은 그렇지 않다.

② • 한글 ‘ㅏ’는 항상 [아]로 소리 나는데, 영어 알파벳 ‘a’는 [애], [에이], [아]와 같이 여러 가지로 소리 난다.

•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릿값을 지니고 있어서 영어 알파벳보다 쉽게 읽을 수 있다.

학습활동 응용 문제

p.155~156

1 ④ 2 ③ 3 ② 4 ①

- 1 임금과 신하 사이의 말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문을 사용한 의사소통 역시 아무런 제약이 없었을 것이므로 세종 대왕이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한글을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
- 2 ① ㄱ-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② ㅁ-입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④ ㅎ-‘ㅎ’에 획을 한 번 더 하여 만들었다. ⑤ ㄴ-‘ㄴ’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다.
- 3 ㄱ-모음자의 제자 원리는 상형과 합성이다. ㄷ-모음의 기본 글자는 천지인(天地人)을 본떠서 만들었다.
- 4 ‘ㄴ’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지만 ‘ㄷ, ㅌ’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가획의 원리로 만들었다.

차근차근 개념 체크

p.157

- | | | |
|----------------------------------|---------------------|----------------------------|
| 01 문자, 한자, 평민, 한문 | 02 ①-㉠, ②-㉡, ③-㉢ | 03 17, 11, 28 |
| 04 상형, 가획 | 05 ㄱ, ㄴ, ㅁ, ㅂ, ㅅ, ㅇ | 06 상형, 합성 |
| 07 ㆍ, ㅡ, ㅣ | 08 ㄱ, 혀끝, ㅁ, 이, ㅇ | 09 ㆍ, ㅡ, ㅣ, 천지인, 하늘, 땅, 사람 |
| 10 (1) ㅋ (2) ㄷ (3) ㅌ (4) ㅈ (5) ㅎ | | |
| 11 ㅏ, ㅑ, ㅓ, ㅕ | 12 ㅓ, ㅕ, ㅗ | 13 소리, 한글 14 ㉠ |

- 01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했는데, 평민들은 문자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다.
- 04 자음자의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고, 나머지 자음자는 가획의 원리로 만들었다.
- 05 한글 자음자의 기본자는 ‘ㄱ, ㄴ, ㅁ, ㅂ, ㅅ, ㅇ’로 총 다섯 자이다.
- 06 모음자의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고, 나머지 모음자는 합성의 원리로 만들었다.
- 07 한글 모음자의 기본자는 ‘ㆍ, ㅡ, ㅣ’로 총 세 자이다.
- 08 한글 자음자의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 09 한글 모음자의 기본자는 하늘, 땅, 사람 즉 천지인(天地人)을 본떠 만들었다.
- 10 한글 자음자의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아홉 개의 가획자를 만들었다.
- 11 모음자의 기본자인 ‘ㅡ’와 ‘ㅣ’에 ‘ㆍ’를 한 번 합하여 초출자인 ‘ㅏ, ㅑ, ㅓ, ㅕ’를 만들었다.
- 12 ‘ㅇ(옛이응), ㅏ(반치음), ㅑ(여린히읇)’은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글자들이다.
- 13 표의 문자인 한자와 달리 표음 문자인 한글은 적은 수의 글자로 수많은 단어를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14 정보 입력의 효율성과, 빠른 정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은 정보화 시대에 두드러지는 한글의 우수성이다.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58~159

- | | | | | |
|------|--|---------|------|------|
| 01 ② | 02 ⑤ | 03 ④ | 04 ⑤ | 05 ② |
| 06 ④ | 07 ‘ㆍ’은 하늘의 둥근 모양을, ‘ㅡ’는 땅의 평평한 모양을, ‘ㅣ’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 08 ②, ⑤ | 09 ④ | |
| 10 ⑤ | 11 ② | 12 ③ | | |

- 01 그림 속 벽보는 당시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나 소식을 알리고 있는데, 한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양반과 달리 한자를 배우지 못한 평민들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당시에 중국의 글자인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적은 이유는 우리말을 표기할 고유한 문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 02 ㉠은 자주정신을 나타내고, ㉡은 실용 정신을 나타내며, ㉢은 애민 정신을 나타낸다.
- 03 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진 한글 자음자의 기본자는 ‘ㅅ’이다. ‘ㅆ’은 ‘ㅅ’에 획을 더하여 만든 자음자이다.
- 04 ‘ㅡ’와 ‘ㅣ’에 ‘ㆍ’를 한 번 합하여 만든 글자는 ‘ㅏ, ㅑ, ㅓ, ㅕ’이다. ‘ㅋ, ㅌ, ㅊ, ㅍ’는 이 글자들에 ‘ㆍ’를 한 번 더 합하여 만든 글자들이다.
- 05 소리가 세짐에 따라 ‘ㄷ’에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는 ‘ㅌ’이다. ‘ㄹ’은 가획자이기는 하지만 소리가 세짐에 따라 획을 더한 글자가 아니므로, 따로 이체자라고 부른다.
- 06 ‘ㅇ(옛이응), ㅏ(반치음), ㅑ(여린히읇)’은 한글 창제 당시에 만들어진 글자이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글자들이다.
- 07 ‘ㆍ, ㅡ, ㅣ’는 모음의 기본자로, 각각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 08 ①, ③, ④는 하나하나의 글자가 일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표의 문자인 한자의 특성에 해당한다.
- 09 영어 알파벳 ‘a’는 단어에 따라 [에], [에이], [아] 등 여러 가지로 소리 난다. 따라서 하나의 소릿값을 지닌 한글보다 읽기 어렵다.
- 10 ‘ㅁ, ㅂ’은 자음의 기본자로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고, ‘ㆍ, ㅣ’는 모음의 기본자로 하늘과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으므로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글자들이다. 그러나 ‘ㅆ’은 가획의 원리로 만든 글자이다.
- 11 (1)에서는 모음의 기본자인 ‘ㆍ, ㅡ, ㅣ’를 조합하여 다른 모음을 만들어 쓰도록 하였으므로 합성의 원리가 적용되었고, (2)에서는 ‘획 추가’ 단추를 활용하여 배치된 자음 외에 다른 자음을 만들어 쓰도록 하였으므로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 12 ‘ㄱ’은 ‘ㄴ’보다 소리가 세짐에 따라 획을 더하여 만들었으므로 모양도 비슷하고 소리 나는 위치(혀의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도 비슷하다.

4 | 듣기·말하기

01 마음을 나누는 대화

■ 핵심 체크 | p.162

1 공유 2 감정 3 비언어적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62

1 ④ 2 ⑤

- 1 듣기·말하기 과정에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는 대화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조정하여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므로 생각은 변할 수 있다
- 2 상대방에게 공감을 표현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맞추고, 적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상대가 말하는 중에 적극적으로 끼어드는 것은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다.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63~167

- 1 공감하며 듣기 2 ① 3 ④ 4 다양한 즐거움을 주는 것 5 ③
6 ① 7 아나바다 운동은 자원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이다. 8 ① 9 ③
10 준희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 11 ③ 12 상대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상대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대화를 원활하게 이끌어 가게 해 준다. 등 13 ④ 14 ⑤ 15 ⑤ 16 ③

- 1 (가)에서 학생들은 상대방의 말에 적절하게 맞장구치고 친구를 위로하는 등 ‘공감하며 듣기’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 2 여학생은 남학생이 말하는 동안 다른 생각을 하느라 남학생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못했다.
- 3 (다)의 대화에서 서울이는 재경이와 ‘여행’에 관한 의견을 나누면서 여행에 대한 생각을 조정했다
- 4 서울이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멋진 풍경을 즐기면서 편하게 쉬는 것이 여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 곳을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여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재영이의 말을 듣고 여행이 ‘다양한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5 (라)에서 지혁이는 마을 장터에 다녀온 소정의 이야기를 듣고 사회 시간에 배운 아나바다 운동의 의미를 떠올렸다.
- 6 (라)에서 소정과 지혁이는 배경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상대가 하는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여 의미를 함께 구성하고 있다.
- 7 (라)에서 지혁이와 소정은 대화를 하며 마을 장터에서 책을 산 경험과 사촌 동생에게 자전거를 준 경험이 모두 아나바다 운동에 해당하고 그것이 자원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임을 깨달았다.
- 8 에서 선혜는 엄마 쪽으로 몸을 돌려 관심을 표하며 말을 듣고 있으며, <C>에서 재영이는 친구 쪽으로 몸을 향해 친구의 말을 듣고 있으므로 둘 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이 라고 할 수 있다.
- 9 선혜의 엄마는 함께 이야기할 것을, 재영이의 친구는 같이 봉사 활동 하러 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별히 잘못을 지적할 만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다. 선혜와 재영이가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상황이다.
- 10 한솔이는 내일 모둠 회의 전까지 자료를 찾을 방법을 고민하는 준희에게 국어 수행 평가가 다음 주라고 이야기하고, 도서관이 문을 닫았다고 하였는데도 지금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등 준희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은 채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 11 효진이가 지애의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12 ㉠~㉢ 모두 상대의 말을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내 주는 맞춤형 구치는 말이다.
- 13 상대방에게 공감하고 있음을 드러낼 때는 대화의 내용에 맞는 시선이나 몸짓, 표정을 사용해야 한다.
- 14 엄마는 누나와 같이 석환이의 생각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강요한다. 그러나 (마)를 통해서 석환이를 대할 때와 누나를 대할 때 엄마의 태도가 다르지는 알 수 없다.
- 15 석환이가 누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누나의 관점에서 협력적으로 소통하며 대화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응, 누나, 누나도 이제 고3이라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힘내.’ 정도로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 16 공감하며 대화하기란 상대의 말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협력적으로 소통하며 대화하는 것이다.

핵심 포인트

p.164~167

핵심 포인트

01 말하는 이, 배경지식

02 반박



내용 한눈에 보기

p.168

의미	존중	배경지식	의미	공감
질문	반복	정리	고개	눈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69~170

- 01 네 말을 들으니까 여행에 그런 의미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02 ③
03 ④ 04 (마을 장터와 같은) 아나바다 운동이 자원을 절약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음에 열리는 마을 장터에 함께 가기로 약속했다.
05 ④ 06 ③ 07 ⑤ 08 고개를 끄덕이기, 지애의
말을 정리하여 말하기

- 01 듣기·말하기는 어느 한 쪽이 의미를 전달하거나 수용하는 것
이 아니라 의미를 주고받으며 생각을 조정하는 의미 공유의
과정이다. (가)에서 서울이와 재경이는 여행의 의미를 주체
로 대화를 나누었고, 이를 통해 여행에 대한 서울이의 생각
이 바뀌었다.
- 02 (나)에서 지혁이는 소정이가 마을 장터에서 했던 경험과 비
슷했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자신의 경험이 지닌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 03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는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의 말
에 귀기울이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
하다. 원활한 대화를 위해 상대의 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려
는 자세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04 지혁이와 소정이는 대화를 통해 아나바다 운동이 자원을 절
약하는 방법임을 깨닫고 다음에 열리는 마을 장터에 함께 가
기로 했다.
- 05 석환, 누나, 엄마는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서로에게 공
감하려는 노력 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다. 공감하
는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06 ㉠에서 누나는 석환이의 말을 자르며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
으로 말함으로써 석환이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
고 있다. 따라서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적절한 반응이나
시선, 몸짓으로 공감을 드러내도록 하라는 조언을 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강한 어조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공감하
며 듣는 태도와 거리가 멀다.
- 07 효진이가 지애의 말을 요약하거나 재구성하여 지애에게 전
달함으로써 지애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자신의 마
음이 어떠한지 등을 알게 되었다. 즉 이로써 지애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 08 ㉠에서 효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몸짓을 통해 지애의 감정
에 공감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지애가 한 말을 정리해서 말
함으로써 지애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5 | 쓰기

01 다양한 표현 활용하여 글 쓰기

핵심 체크 | p.174

1 속담 2 X 3 X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74

1 ③ 2 ②

- 1 ③의 ‘손을 씻다’는 단어 그대로의 뜻, 즉 일반적인 의미로 쓰
인 말이다. ① 발이 묶이다: 몸을 움직일 수 없거나 활동할
수 없는 형편이 되다. ② 김칫국 마시다: 상대는 생각지도 않
는데 미리부터 다 된 일로 여기고 행동하다. ④ 배가 아프다:
남이 잘 되어 심술이 나다. ⑤ 귀에 못이 박히다: 같은 말을
여러 번 듣다.
- 2 ① 먼 데서 생긴 일은 알아도 가까운 데서 생긴 일은 모르고
있음을 이르는 말 ② 이루기 매우 어려움을 이르는 말 ③ 매
우 쉬워서 잘할 수 있다는 말 ④ 우연히 갔다가 공교로운 일
을 만났을 때를 이르는 말 ⑤ 잘 되어가던 일을 갑자기 망쳐
실패함을 이르는 말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75~177

1 ⑤ 2 ① 3 속담, 상황을 간결하고 재치 있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
의 생각을 인상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4 ④ 5 ⑤ 6 ① 7 ③ 8 ⑤
9 ④

- 1 관용 표현이나 속담, 명언과 격언 등을 활용하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 글의 주
제를 보다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2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상의 이득을 보게 됨을 비유적
으로 이르는 속담인 ①을 인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4 현지는 시험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산에 가기 싫어했고,
울며 겨자 먹기로 아버지를 따라 등산을 갔다. 하지만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와 등산을 하면서 적당한 휴식이 목
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 5 ㉠은 명언이 아니라 “청년들이여 일하라, 좀 더 일하라, 끝까
지 열심히 일하라.”라는 비스마르크의 격언을 자신만의 개성
있는 표현으로 변형한 것이다.
- 6 ‘이주 깨끗하게’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인 ‘씻은 듯이’가 들어
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익숙하다 ③ 없어선 안 되는 존재
라는 의미 ④ 일이 이미 끝난 뒤에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의
미 ⑤ 음식을 빠르게 먹어 치우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내
는 말

- 7 등산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는 이 글에 드러나지 않는다.
- 8 ㉔의 속담을 활용하여 산에 오르는 것을 쉽게 여긴 현지의 태도를 간결하고 인상적으로 드러낼 수는 있지만, 교훈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9 ㉔는 기존의 명언을 자신만의 개성 있는 표현으로 변형한 것이다. 체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인상적이고 개성 있게 표현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p.175~177

핵심 포인트

01 관용

02 명언

03 유명인



내용 한눈에 보기

p.178

관용구 등산 교훈 관용구 억지로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79~180

- 01 ④ 02 ④ 03 ② 04 초콜릿 보기를 돌같이 하라. - 참신한 표현을 활용하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인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05 ④ 06 ⑤
- 07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멘다.
- 08 ②

- 01 관용 표현은 기존의 어휘들이 모여 새로운 의미로 굳어진 경우로, 새로운 어휘인 것은 아니다.
- 02 ① 엉뚱한 사람이 이득을 얻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어떤 일엔 반드시 원인이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지난 일을 후회해도 소용없음을 이르는 말 ④ ‘일의 순서가 잘못됨’ 혹은 ‘일거양득’의 상황을 이르는 말 ⑤ 말이나 글을 거침없이 줄줄 내리읽거나 내리외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03 목마르기 전에 우물을 파는 행위는 문제 상황 이전에 미리 대책을 마련해 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04 태경이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라는 명언을 변형한 표현을 제시했다. 이처럼 참신한 표현을 활용하면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며 의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05 제시된 설명은 관용 표현의 의미로, ‘아주 깨끗하게’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은 ‘씻은 듯이’이다.
- 06 (마)에서 참신한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휴식의 필요성이다.
- 07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사소한 것이 반복되면 무시 못할 것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

급하게 무언가를 하면 일을 그르친다는 의미의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멘다.”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 08 이 글에서는 휴식과 여유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을 격언을 변형한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공부에 관한 격언은 나타나 있지 않다.

